



#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9년 11월

특별기획 -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

##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로 신청하세요 !!!

**학부모님! '처음학교로'는 이렇습니다.**

- ▶ 처음학교로는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모든 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여 유아모집·선발을 해야 합니다.

우선모집 접수 11.5.(화) ~ 11.7.(목)    일반모집 접수 11.19.(화) ~ 11.21.(목)    대기자 선발 및 추가모집 11.30.(토) ~ 1.31.(금)



Vol. 448. 2019. 11.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을 위한 노하우  
지방교육재정의 해안



# Story

NOVEMBER 2019 Vol. 448

22

26

04

## COVER STORY

학교예술교육 한마당의 학생공동설치미술 현장에서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6학년 2반 팀은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학교를 '택배맨'이 배달해오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을 뚫고 나가는 듯한 '택배맨'이 인상적이다. 작품의 제목은 '고객님, 주문하신 학교 배달 왔습니다.'

56

7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ntents

## 특별기획 I

- 02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
- 04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 08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 11 집단지성으로 한국 미래교육 논의
- 16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20 미래교육을 논하다

## 현장이야기

- 22 꿈이 영그는 현장 '다양함' 속에서 배우는 다문화교육
- 26 삶과 교육 권일한 삼척 미로초등학교 교사
- 30 우리교실, 프로젝트 행복한 인생설계 프로젝트
- 34 창업공방 전영우·김아나 무아 공동대표
- 36 명예기자 리포트 제14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외

## 특별기획 II

- 41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을 위한 노하우
- 42 고3, 예비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
- 44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 정책이야기

- 48 정책N전망 '한글 책임교육'으로 초등학생의 고른 출발 지원
- 51 초점1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열려
- 52 초점2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② 부산광역시교육청
- 54 초점3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
- 56 이슈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 59 꽃 피는 교육자치 도담초 "아프리카 아이들 일상 체험했어요" 외

##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지방교육재정의 해안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게으른 아이 정현
- 70 교사상담실 자신과 공합이 맞는 고등학교 선택해야
- 72 이야기 인문학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이 있었을까?
- 74 일상의 쉼표 가을 제주에서 만난 비경
- 78 뉴스 브리핑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99.6% 참여 외
- 80 행복 게시판





2019 미래교육 한마당 개막식에서 유은혜 부총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어린이·청소년 100여 명이 교육·문화 권리 선언 후 바람개비를 불고 있다.

I 특별기획

#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알아보는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이 지난 10월 23~26일 4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교육주제관, 교육기부 박람회, 학교예술교육 한마당, 학회 등 총 5개의 세부행사가 함께 진행돼 미래교육의 방향을 세계와 나누고,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2.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3. 집단지성으로 한국 미래교육 논의
4.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5. 미래교육을 논하다

[표]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행사 구성

| 행사               | 내용  |
|------------------|---|
| 한-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 - OECD 2030 워킹그룹 회의와 연계한 국제행사 개최로 중장기 한국 교육 방향과 목표 논의<br>-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 회의, 시민원탁토론회              |
| 교육주제관            | - 주요 교육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br>- 전문가 강연 및 포럼, 홍보·전시 부스                                   |
| 교육기부 박람회         | -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체험·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br>- 교육기부 테마 전시 및 체험, 교육기부 참여 기관 워크숍                  |
| 학교예술교육 한마당       | - 학교예술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교예술교육 축제의 장 제공<br>- 학생 발표회, 공동설치미술, 교원 컨퍼런스, 예술진로교육 페스티벌 |
| 미래교육을 논하다        |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미래교육 논의<br>- 학술 토론 심포지엄  |



#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 미래교육을 만나다

##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미래교육에 대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는 ‘미래교육 2030,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의 기조연설,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를 비롯한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별 주제로는 평생학습, 새로운 학습 및 학교 체제, 고등교육 혁신,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 교육자치 등 현재 논의되는 교육 관련 이슈를 모두 담았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국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 관련 불안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며 “학생들이 자기주체성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웰빙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교육부와 OECD가 공동 주최한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정부 대표·전문가·학생들이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식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된 창덕여중을 방문해 미래형 교육과정과 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OECD 참가자들과 학생·교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1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은 전남 광양여중 퓨전국악동아리 '해온비'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2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2030년을 향한 한국교육, 학생 성공을 다시 정의하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3 45 미래 교실의 모습을 구상한 '경계 없는 학교'  
6 고교학점제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미리 만나는 고교학점제' 주제관



## 교육주제관

교육주제관에서는 디지털과 가상 공간을 활용한 '경계 없는 학교', 학점제가 도입된 미래학교를 예상할 수 있는 '미리 만나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교과서를 살펴보는 '교과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등이 마련되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체험해보고 강연과 포럼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경계 없는 학교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구상한 부스로 창문을 칠판처럼 활용하고, 교실 한쪽에 메이커 공간을 마련해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코딩을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조종해보는 수업시연이 이뤄지고, 교과로서만 보던 문화재와 지역 명소, 동식물의 생생한 모습을 AR·VR을 이용해 교실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평생학습체험관에서는 학습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평생학

습계좌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등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의 인기강좌를 오프라인 특강으로 연계해 교수와 학습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고교학점제 주제관에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실행에 앞서 고교학점제 정책의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선택 및 학업 설계 상담, 원하는 과목들로 채운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 학교 경계를 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등의 코너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미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미래학교를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



### 학교예술교육 한마당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학교예술교육 한마당에서는 '미래, 예술, 삶을 잇다'를 주제로 전국의 37개 학생동아리(554명)가 음악 공연과 공동설치미술을 선보였다. 진로특강 등 예술계열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미래교육을 논의하는 교원 컨퍼런스, 지역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전시관 한편을 모두 차지한 학생공동설치미술 현장. '미래=사과×상상력'이라는 주제로 20팀의 학생동아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종이상자, 빨랫줄 등을 사용하여 설치미술을 제작했다. '고객님, 주문하신 학교 배달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완성한 광주교대부설초 6학년 2반 팀은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학교를 '택배맨'이 배달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택배맨의 몸을 구성하는 종이상자에는 '존중', '합의', '과정 중심 평가' 등 미래교육을 뜻하는 단어를, 온몸을 휘감고 있는 끈에는 '순위', '차별' 등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을 대표하는 단어를 적어놓고 이를 뚫고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효명고 조형예술부 팀은 '새로운 평화'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 당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산을 쓰고 괴로워하는 아이로 표현했다. 권유정·김가은(1학년) 학생은 "동아리 시간에 주로 크로키, 자화상 그리기 등을 했는데 부원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협동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팀을 이끈 송락형 교사(미술)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구상해 직접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대견하다."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학생 발표회에서 인천초은고 댄스동아리 'Goddess(가데스)'는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주제로 한 창작 안무를 선보였다. 이단비 학생은 "방과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함께 연습했는데, 대회에 참가하면서 친구들과 더 소통하고 자아 성찰도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7 경기 효명고 조형예술부 팀의 작품 '새로운 평화'  
8 충남 천안월봉고 팀의 작품 '그 문을 열고 또 문을 열며, 우리의 사과는 어디로'  
9 10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 교육기부 박람회 현장  
11 한국교육학회는 미래교육과 교육주체의 역할을 주제로 학회를 진행했다.



### 교육기부 박람회

올해로 8회를 맞은 교육기부 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역량 진단과 맞춤형 진로 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 설계를 돕고,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승무원 체험, 비행기 조종 체험, LED 암벽등반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드론교실, 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부로 나누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시·체험 부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고등학생이 패션디자이너와 패션모델이 되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의상을 입고 펼치는 패션 퍼포먼스, 초·중·고등학생 교육기부 수혜자로 구성된 응원 봉사단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요합창, 치어리딩 공연 등 특별무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과 진로 선택 방법에 대한 강연 등이 펼쳐졌다.

### 미래교육을 논하다

한국교육학회에서는 불확실한 미래교육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변화된 미래교육 환경에 맞는 각 교육주체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매체가 교수·학습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또,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학습망이 전통적 학교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래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학생·교사·학부모로 꼽히는 교육의 3주체 역시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직원과 학부모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학습자에 발맞춰 가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5개로 분류된 세션에서는 각각 사회학·경제학·철학 등 교육 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논하는 미래교육, 한국의 교직원 현황과 미래 과제, 학교장의 학교 자율 운영 사례, 학부모의 생산적 교육 참여 방법, 미래 학생 생태계 변화와 대학의 대응 등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교육 시스템의 큰 도전이자 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상상과 논의가 모여서 바람직한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①

#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김진경 의장

오늘날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

우리 현세대의 조상인 크로마뇽인에게서 두뇌혁명이 일어났다. 두뇌혁명으로 인류는 이전까지 무관하게 여겨졌던 이질적인 것들의 관계를 이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공감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수준의 디지털 기술은 이제까지 무관해 보이던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 수준 기술이 보편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만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가치판단'과 '관계 맺기'일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비약적 기술혁신을 이루면서 더 '인간다운 삶'으로 이끌 것인가, 국제분쟁 등 파괴적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근대산업국가는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던 산업사회의 상당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져서 근대산업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고용의 불안정화와 고용조건의 악화를 보완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후퇴는 부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세계적 수준에서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깊어지면 소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최근 전개되는 무역전쟁은 이 제한된 소비시장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게임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근대산업국가의 체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인구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은 급격히 높아지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첨단형 기술 연구개발과 남북평화체제의 모색,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무역전쟁이 가하는 시장의 제약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 공감과 연대의 미래교육체제

한국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도전에 대한 교육적 응답은 무엇인가?

#### 01 학력 중심 학습체제를 역량 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력 중심 학습체제는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이 목표이다. 국민의 삶을 큰 틀에서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된 주체는 국가였다. 국민은 더 상위의 직업으로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학력 경쟁을 벌이는 존재였다. 이렇게 동원되어 자신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학습자가 추구하는 학력이란 요약·압축된 학문적 지식을 암기 적용하는 능력으로, 국가가 분류한 더 상위 위계의 직업으로 나가기 위한 자격증 역할을 하였다.

반면,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삶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정립하는 과정이 곧 학습의 과정이다. 누구나 자기 삶에 의욕을 갖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의 미래교육체제는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지식을 창출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체제여야 한다.

을 느껴야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식 창출, 태도형성, 가치관 고양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삶과 분리된 학습자에서 삶의 주체인 학습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력개념을 개념적 앎(지식)에서 '할 줄 앎', '살 줄 앎'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세 가지 앎의 융합으로써 '살아가는 능력'을 중심에 두는 역량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02 지식 수입형에서 지식 창출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설계형 연구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첨단형 경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앎의 주체자', '앎의 설계자'를 요구한다. '앎의 주체자'는 스스로 새로운 앎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 배운다.

한국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의 성공률은 97%이다. 이는 추격형 연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결과를 상품화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한 연구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연구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식 창출형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역량중심 분화를 통한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실전형 고등교육직업을 창출해야 한다. 실전형 고등교육기관은 산업현장과 밀착돼 기동성이 있어야 하고 질 높은 교육과 실습이 운영되는 곳이어야 한다. 교육중심대학은 이러한 실전적이고 혁신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과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현장성 높은 지식과 학문적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중심

대학도 세계 수준의 지식 생성과 흐름 속에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질 관리를 통해 정예화해야 한다.

#### 03 국민이 교육수요자에서 교육주권자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은 교육수요자로 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제도나 정책과 같은 규칙을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 있는 교육주권자이다. 교육주권자는 자기의 삶과 학습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 주체이다.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단위 중심교육으로의 전환과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확대를 요구한다.

#### 04 삶과 분리된 분절형 교육시스템에서 생태계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절형 교육시스템은 국가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한 산업구조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국민을 동원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은 제도교육의 손이 닿지 않는 외곽에서 분절된 교육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체제야말로 생태계형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지자체, 교육지원청과 연계하고 제도·비제도 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삶 속에 스며드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2030 미래교육체제는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놓는 징검다리이다.

**05** 기본학습역량을 인간적 권리로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학습역량'이 없다는 것은 사회활동에서 '배제'를 의미하며,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본학습역량'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권리이며, 지능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시민의 권리이다. '기본학습역량'을 갖춘 시민이 일생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주요 의제들

2030 미래교육체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01**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소해야 한다.

교육 내적 공정성이란 아이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의 연원은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진입을 둘러싼 영역에 아직 온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학력 경쟁시스템에 있다. 이해관계의 문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단기적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능 문항을 개선하거나 학부·주민이 학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학생부종합전형 등 공정성의 개선도 가능하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가는 교육개혁에 해법이 있다.

**02** 경제·사회 혁신과 맞물리는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상층직업군 진입 경쟁 다툼에서 교육 외적 공정성 논

란이 되듯이 교육문제의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인구절벽, 고령사회로의 진입,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등의 경제·사회문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은 경제·사회혁신과 맞물려 추진해야 하고 관련 분야 거버넌스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03** 중장기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

경제·사회혁신과 맞물리는 교육혁신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주도로 기획하고 하향식 정책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국민은 교육주권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개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미래교육체제는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수립할 수 있다. 정권 차원을 넘어 서서 일관된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 2030 미래교육체제는...

끝으로 우리의 미래교육체제는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지식을 창출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체제여야 한다. 기본학습역량을 인간적 권리로 보장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평생학습 기회를 시민적 권리로 보장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국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교육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놓는 징검다리이다. ②

※ 본 원고는 10월 23일에 진행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② 집단지성으로 한국 미래교육 논의

'교육 2030, 함께 만드는 미래'를 표어로 진행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는 사흘간 2,500명이 참석하여 2030년 미래 우리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개막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양극화 심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거대한 도전에 대한 교육적 해법으로 '역량중심의 학습혁명'을 제안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최저 수준인 점에 주목하여, 한국 학생의 성공은 학업성취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날, 공동 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8개 국가(지역)의 학교교육·건강교육의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 'OECD 체육교육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 <박스 기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 체육교육은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뿐 아니라, 신뢰·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역량 발달과 함께 자존감·자기 효능감·삶의 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는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해 △미래사회의 새로운 학습·학교 체제 <박스 기사>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혁신 및 정책과제 △일·학습·삶의 선순환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박스 기사> △디지털 전환과 교육체제의 융합 방향 △교육자치와 교육주권 등 교육 분야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해외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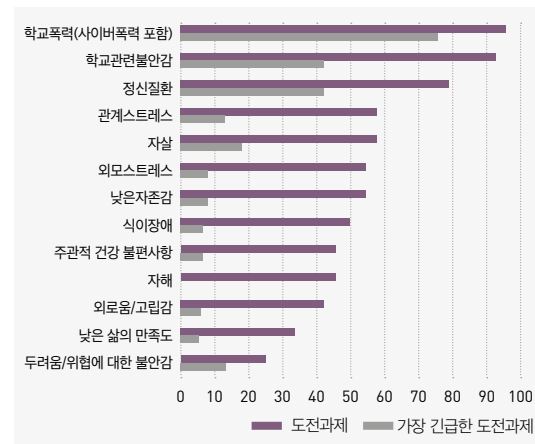
또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제10차 OECD 교육 2030 워킹그룹회의' (교육부·OECD 공동주최)도 3일간 함께 열렸다. 이 회의는 학교 교육의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15년 출범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수업방식·학생평가'의 일관성 제고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400여 명의 시민이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미래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박스 기사>도 진행, 시민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학생의 풍요로운 삶과 균형 잡힌 성장

[표] 세계 국가의 정서적 웰빙에 있어 우선순위 및 긴급과제 개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자기효능감 등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과 우베 뢰제 스위스 바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체육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18개 국가의 학교체육·건강교육의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 ‘OECD 체육교육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무시수는 높은 편이나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일주일에 2일 정도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일본, 헝가리, 폴란드는 대체로 3일 이상 체육교육을 실시 중이다.

뢰제 교수는 “체육교육과정은 보다 역동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체육교육의 목표는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 웰빙을 중심에 두고 재정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체육·건강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체육 및 건강교육의

중요 개념으로 범교과적 역량을 포함해 풍부한 지식과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과 삶의 균형성장을 위한 학생 웰빙 정책 방향”을 발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웰빙 측정 개념들과 유사한 한국 학생 웰빙 현황 분석들을 고안해 제시했다.

반 원장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인지적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던 학교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분석들에 따라 학생 웰빙을 조사한 결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았고,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학생도 1/3정도 되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응답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정서적 지원 등에서 학생들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학교폭력 발생률이 거의 없었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해 증가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학생 웰빙과 관련되어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 원장은 “학생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인식 변화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실천과 과제”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교육 이면에 경쟁과 학생 수월성 증시, 결과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지식·암기 위주 수업, 수동적 학생 양성 등으로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을 길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선택하고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정책을 꼽았다.



## ‘시장 중심, 시장 주도’의 독일 평생학습체제



노동자의 권리로서 업무 숙련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체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훈련과는 별개인 독립된 블록처럼 하향식으로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평생학습이 이뤄져 왔다. 그 때문에 법적인 틀과 재정지원 그리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시장 중심, 시장 주도의 독일 평생학습체제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바바라 험크스(Barbara Hemkes)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 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는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수립” 발표자로 나서 독일의 평생학습 국가전략 및 사례를 소개했다.

험크스 부서는 “독일의 평생학습은 ‘시장 중심, 시장 주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육·학습 기회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민간 영역 제공 비율(24%)이 가장 높다. 교회·정당·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19%)와 지역사회 기반 성인교육센터(13%)가 뒤를 이었으며, 직업학교는 7% 수준이었다. 시장과 민간에서 원활하게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도 제공한다. 독일에서는 개인이 마이스터 교육과정 등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법에서는 교육 휴가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어 유급학습휴가도 신청할 수 있다.

독일 평생학습은 형식학습(일반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과 비형식학습(대학의 자격증 코스 및 사내교육, 문해교육, 업무 역량교육 등), 무형식학습(직장과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학습)으로 구분한다. 험크스 부서는 “비형식 학습이 독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이며 사내교육이 7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다.

험크스 부서는 “향후 독일 내 직업 구성의 35%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 25%는 신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를 ‘평생학습 국가전략’을 수립했다.”라며 “개인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 사례1

- 대상 : IT 전문가 학위를 취득한 22세 여성 A씨
- 상황 :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고등(3차) 교육학위 필요, 환경 NGO(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 높음
- 지원 : 1. 지역 상공회의소 교육센터의 IT 전문가 과정 제공 (직업교육법 프레임워크 하에 정보처리학 학사와 동일 효력)  
2. 기술향상지원법에 근거하여 주 정부 차원의 개별기금 지원  
3. NGO 세미나 참석(독일 환경부에서 일부 비용 지원)  
4. 유급학습휴가 사용 가능

### # 사례2

- 대상 : 육아 휴직(5년) 후 복직을 앞둔 B씨
- 상황 : 산업 매니저로 근무했던 회사로 복직하고 싶어 함(휴직하는 동안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무환경이 변하였음)
- 지원 : 1. 연방고용청에서의 상담 진행  
2. 민간에서 제공하는 ‘IT 숙련 회복 및 향상’ 교육 가능  
3. 지역사회의 성인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어 자격증 수업 가능(‘교육 보너스’ 프로그램 통해 수업료 50% 지원, 수업료는 세금공제 가능)





NEWS\_3

## 2030 미래교육 시민원탁토론회 학생·시민 400명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교육이란?



“저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의 걸림돌은 대학 서열화를 비롯해 총체적 강요이며, 이 강요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은 ‘자치’입니다. 자치와 자율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면서 정책적으로는 개별화된 진로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2030년에는 대학전공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유전공도 만들어서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대전둔원고 1학년 김하늘 학생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대학들이 촘촘하게 서열화 되어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수 대학에 진학시킬까’를 기준에 두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학습과 진로를 아이들의 자율성과 속도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하고 차츰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단계별로 평준화해야 합니다. 배움의 속도에 맞춰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개별화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소담고등학교 김영진 교사

### 행복한 삶, 어떻게 만들어갈까?

2030 미래교육을 주제로 시민원탁토론회가 열렸다.

10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17개 시도의 시민, 지자체, 교육청에서 추천한 400명이 원탁에서 ‘학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교육,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대주제 하에 △학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마을교육공동체 등) 만들기 △시민·지자체·교육청(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협치체제 활성화 △삶과 삶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등의 미래교육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들 소주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산업·노동계 등 400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지난 6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친 내용을 심화 토론하여 미래교육 의제로 제안한 것이다.

이날 시민원탁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주어진 미래교육 의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모둠별 합의를 도출했다.

△학습자 중심의 학교자치와 혁신을 다룬 의제에 대해서 서울·인천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재구조화하고 학생인권조례 실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자치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강원지역은 “학교자치의 출발은 학

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에 있다.”라며 학교별 교사 채용, 고교학점제 확대, 주체별 자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의제로 토론한 세종지역은 “마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배움 공간을 확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교육열, 학교 급간 교육과정 연계 불일치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앞으로는 마을교육자치위원회 설립으로 주민, 민·관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나아가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경기·강원지역은 평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사회참여의 실현, 다양한 교육기부 등을 디딤돌로 꼽았으며 승자독식으로 인한 낙인효과나 생애주기에 대한 강박, 교육기회의 격차 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특히 이 모둠에서는 평생학습생태계를 구축해 학습과 일이 어우러지는 것, 교육체제의 유연화와 다양화, 진로전환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충남·충북지역에서는 “소통과 자치를 통해 민관의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나아가 교육주체 주도의 민관 혁신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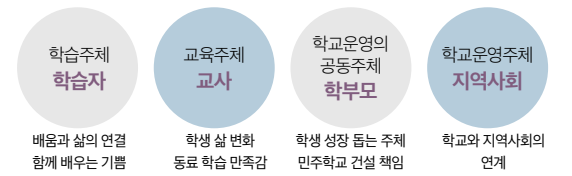
이날 마지막까지 시민원탁토론회를 지켜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일제 해방 이후 각 동네에는 학교만들기 운동이 일어났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학교설립운동이 금지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교육체제로 변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며 “미래교육을 바꿔 가는 힘은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탄탄하게 미래교육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전국에서 모인 학생·시민의 의견을 모아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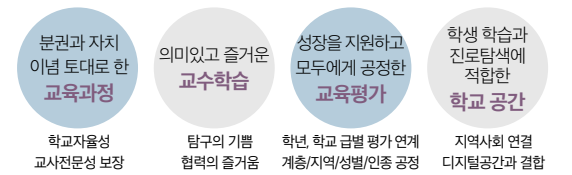
NEWS\_4

## 그림으로 보는 새로운 시대, 학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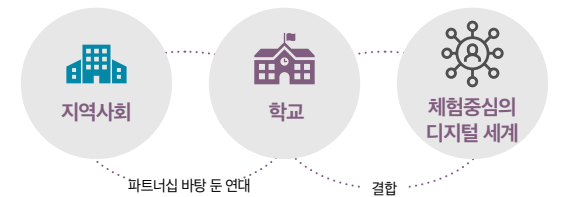
### [그림1] 학습과 교육주체의 정체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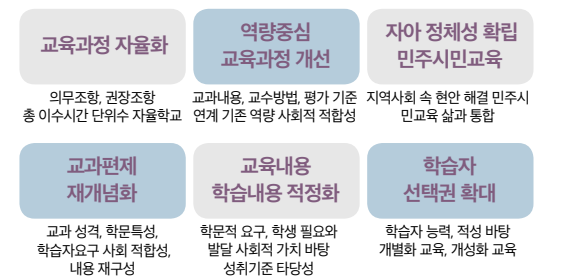
### [그림2]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습체제의 구축



### [그림3] 삶과 삶이 연결되는 학습체제의 구성



### [그림4] 미래 교육과정 방향과 과제



지원체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중장기 로드맵 실천 전략

※ 출처 :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발표 내용 중 요약





1 현장에는 총 123개 진로·적성 체험 부스가 설치됐다.  
 2 일산소방서 소방대원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체험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VR을 이용한 해양생태 체험  
 4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체험교실에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5 김포몽실학교의 샌드아트 교실



##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나눔으로 완성된 진로·적성 체험 현장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기부는 필수”  
 기업·대학·공공기관 130여 개 기관 참여  
 대학생 교육기부단 맞춤형 컨설팅 효과적**

‘교육기부, 미래를 밝히는 빛 세상을 깨우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130여 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첫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 기업, 대학 등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격려했다. 올해는 친환경 에너지교육과 해양생물 관련 진로체험,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31개 기관 및 개인이 수상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포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성진 한국과학창의

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 모두가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힘써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교육 기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장에는 교육기부 테마관 및 건강과 안전, 경제 활동, 과학기술, 나눔과 인성, 문화와 예술, 미래진로, 수학, 예체능, 항공우주, 환경과 에너지 등 11개 교육 분야, 총 123개의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컨설팅 존을 운영, 수많은 체험 부스를 가운데 참가자들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 마을’에는 교원 및 학부모에게

유용한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다. 사이언스올에서 운영한 ‘사이언스와 함께하는 과학문화 놀이터’에서는 AR 체험·게임을 통해 쉽고 즐거운 과학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우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을 활용한 맨틀 낚시 체험을 기획했다. 또, 공룡 발굴 체험을 통해 지질학자가 하는 일을 접해 보고 고생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지구과학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과학자가 전하는 지구 이야기’ 공개강연을 통해 지하수 라돈 최소화 및 공급 기술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비교우위, 기회비용, 기업이 정신과 같은 경제용어를 다트 던지기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사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진퀴즈를 준비했다. 이날 부스를 운영한 KDI 관계자는 “사진카드 안에 퀴즈의 답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며 “카드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의재판부터 승무원 체험까지...123개 부스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체험실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일산소방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체험, 선박·비행기 등 교통안전 체험을 비롯해 법무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로파크’에서 직업흥미검사 및 모의재판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스를 운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 실습과 응급처치 등의 기내 안전 교육을 체험하는 ‘승무원 체험교실 및 안전교실’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현직 직원과 항공업 진로·진학을 상담하는 ‘교육기부 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직접 종이, 나무로 항공기를 만들어보고 하늘을 날아보는 시뮬레이터 체험존을 마련해 항공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이 밖에도 보석감정, 토탈공예, 향기 교육, 아나운서 체험, 예술치료 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 부스들이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미래교육관에서 만난 가재울중학교 박용빈 교사는 “대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차갑고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배워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박 교사의 인솔로 박람회 참가한 같은 학교 김승환 학생(3학년)은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메이커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 나중에 이런 박람회에 부스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총 123개에 달하는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들은 종류의 다양성뿐 아니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터의 활용이 돋보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온 학부모 김태연 씨는 “하루 정도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와서 둘러봐도 모자랄 것 같다.”라며 “다음번에도 아이와 함께 꼭 다시 올 것”을 다짐했다.

**총 123개에 달하는 부스에서 진행된 체험들은 종류의 다양성뿐 아니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터의 활용이 돋보였다.**

6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는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선 31개 기관 및 개인이 수상했다.  
7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에서는 참가자들의 적성에 맞는 체험 부스를 추천하는 컨설팅 존을 운영했다.



MINI INTERVIEW

INTERVIEW.1 이정균 삼성SDI 사회공헌단 사무국장

**남들과 달라지는 반 발자국의 시간들 -8년여에 걸친 삼성SDI의 교육기부 발자취**



“달라지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힘을 얻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만나는데 있어 힘든 점은 없냐는 질문에 이정균 삼성SDI 사회공헌단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삼성SDI는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삼성SDI 사회공헌 프로그램 '푸른별 환경학교'와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시작한 '푸른별 꿈꾸는 학교'의 성과에 힘입어서다. 이정균 사무국장은 “기부대상을 수상한 것은 사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묵묵히 프로그램을 이어가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와 경기 도서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통해 만난 '푸딩이들은 어느새 2만 6,892명에 달한다. 이 사무국장은

“초딩, 중딩처럼 환경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친구들을 푸딩이로 부르고 있다.”라며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방법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삼성SDI는 지난 8년 동안 '함께 누리는 건강한 에너지, 튼튼한 지구환경'을 목표로 꾸준히 '푸른별 환경학교(www.poodding.com)'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푸른별 꿈꾸는 학교'는 현재 3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체험키트로 미래 에너지를 체험해보고 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정균 사무국장은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학교를 찾고 싶다.”라며 “환경학교나 꿈꾸는 학교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교육기부의 자발적인 선순환을 이뤄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INTERVIEW.2 변황우 순천제일대 교수

**로봇 교육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변황우 순천제일대 교수는 과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농촌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딩·로봇교실을 운영하며

교육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전남, 충북, 강원 등에서 로봇대회와 로봇캠프를 개최하고 과학 재능기부 강연, 초·중·고 일일 교사 및 직업체험 교육,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그는 지난 1998년부터 전남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직업 가치관 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05년 로봇대회 ‘순천 로봇토피아 전국대전 2005’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대회를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로봇교육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교육기부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사람이 가진 조그마한 재주를 나눌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지요. 저에게 ‘교육기부’는 공동체적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는 학습의 기회입니다.”

그의 교육기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공부도 하지 않던 문제 학생이 로봇 교육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었다.

“로봇대회에 참가해 동상을 받은 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학생으로 바뀌었다며 감사해하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모습에서 교육적 배려와 나눔이 필요한 이유를 느끼곤 하죠.”

20여 년간 나눔의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는 변 교수는 앞으로 동료 교수와 지인들에게도 지적 봉사활동이 갖는 행복감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제안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2



## 미래교육을 논하다

# 교육주체의 변화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2019 대한민국 미래교육 한마당에서 펼쳐진 다섯마당 중 하나는 학술대회로,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 미래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현재 학습자가 이미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국교육학회는 미래교육과 교육주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미래교육과 교육 주체의 역할을 주제로 각 주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논의했다.

### 01 미래교육과 교직원체의 역할은?

####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교과 내용으로 혁신

“미래교육은 장소로서의 학교와 시간으로서 수업시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지식축적보다는 지식판별과 활용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평생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 배우는 평생학습의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강원대학교 이종각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세션이 시작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임운영 부회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은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제시하며 “교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을 개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교원이 부족한 영역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신만 부위원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교사만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그 길은 상호협력적인 자세와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교육자치 강화·학습자 맞춤 지도

‘학교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법에 나타난 주어를 보면 교육의 3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장이다.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라고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성식 대표는 말했다. 그는 “교육법의 주어를 교육당사자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주체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온전한 교육자치이다. 변화와 개혁은 다양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복수 교원단체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인사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학교 자치의 핵심은 교장공모제, 교장직선제이며 이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학교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 사회성 교육, 감성 교육 등으로 균형 있게 전환해야 한다. 특히 미래교육은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학습지원은 더욱 촘촘하고 세밀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 지원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습자마다 학습의 변화속도와 방법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교사도 단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학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나명주 회장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교사의 전문성이 아니라며 교사에게 감수성,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어 “학부모와의 소통능력도 교사의 자질”이라고 덧붙였다.

### 02 미래교육과 학부모의 역할은?

#### 학부모 의견 제공·소통 필요성 강조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다. 교육의 변화와 학부모에 대한 기대를 발표한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문민정부 이후 학부모 자치조직이 아직 미완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교육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음을 역설하며 학부모 자치조직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균형 잡힌 판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대중 서울대 교수는 평생학습시대가 학교 자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촉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학부모는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담임, 교육권의 원천적 소유자로 인정하며 교육권 재학부모(教育權在學父母)로서 중요성을 인지했다. 장 교수는 부모와 학부모의 담론적 지위를 구분하고 학부모의 재개념화를 주장하며 학부모의 의미를 ‘학습하는 부모’로 의미를 확장했다. 이는 평생학습 시대의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적 관심으로 일방적 학교 운영 극복

학부모의 지역 공동체에서 생성된 학부모 담론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지역의 교육 과제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와 역할 담당을 확장된 변화로 인식했다. 일방에 의해 학교 운영이 좌우되는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교육적 의지를 견지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현행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고 있는 우리 교육의 환경을 전환할 때임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급변하고, 학습자의 특성이 달라져 교육도 그에 맞춰 변화되는 것뿐이다. 교사와 교원단체가 앞장서 교육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부모도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해 교육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학회는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여러 단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2



# '다양함' 속에서 배우는 다문화교육 우리 아이들, 세계시민으로 자란다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모두 137,225명으로 전년도보다 15,013명(13%)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 속도는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상급 학교로 갈수록 증가율은 다소 떨어진다. 처음 다문화 학생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순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12년 5.6%였던 외국인 가정

의 비율은 2019년에는 14.9% 비율로 증가했다. 학생 수도 2,626명에 그쳤던 것이 2019년에는 10배 늘어난 20,459명으로 집계되었다.

### 크게 늘어난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

천안 신부초등학교(교장 이은옥)의 사례는 이런 통계를 뒷받침한다. 신부초의 학생 수는 845명이며, 이 중 79명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한 다문화 학생 수는 19명인 데 반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60명에 달한다.

한석희(신부초) 교감은 “전체 학생 수의 1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입국한 아이들이 대거 늘었다. 저학년 비율이 높고, 한 학급에 2~3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다.”라며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문화와 언어 때문에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 때문에 신부초에서는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언어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어 강사 1명, 이중언어 강사 2명을 채용하여 3개의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림) 3개 계산에(해) 주세요.”(자하라)  
“모두 천오백원이예요. 봉지에 너(넣)어 줄까요?”(다닐)  
“네, 봉지에 너(넣)어주세요(요).”(자하라)  
“여기 거스(름)돈 오백 원 있어요.”(다닐)

2학년 즈구랄스크 자하라와 5학년 리가이 다닐이 손님과 주인 역할을 맡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상황을 연습한다. 한 글자씩 더듬더듬 서툰 말로 한글을 읽어 내려

가는 아이들은 신부초 한국어학급(왕초급B반) 아이들이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말 그대로 왕초급 아이들이지만 한국어학급에서 주당 9시간씩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활 속 표현을 조금씩 익히며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적응 중이다. 한국어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1대 1로 코-티칭(co-teaching) 및 교과적용 수업을 편성하여 언어로 인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부초 강한민(한국어학급) 교사는 “한국어학급에서도 아이들의 수준차가 존재하고, 또한 일상용어와 교과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3개의 한국어학급 외에도 교과적용 수업을 하고 있다.”라며 “6-12개월 정도 어휘 중심으로 교과적용 수업을 진행하는데, 용어나 어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과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효과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 중도 입국 초등학생 무학년제 한국어교육

한편, 신부초 한국어학급의 최대정원은 2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교육지책으로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일부를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3 신부초등학교 한국어학급







(이하 천안센터)에 위탁해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업단지가 위치한 천안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하고 있어 이들의 자녀 교육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도 입국한 학생들의 미숙한 언어는 학교생활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19년 3월경 아산과 천안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2곳을 지정, 한국어 위탁교육을 해오고 있다.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현재 위탁교육생 16명 중 신부초 학생이 10명, 그밖에 신촌초, 마천초, 천안초에서 한두 명씩 위탁받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 예비학급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아산과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소수의 아이를 모아 한국어교육을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천안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전담인 김형근 교사는 “센터에 입소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고 아이들

의 수준 차이도 있다.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무학년제로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다.”라며 “때문에 한국어의 기초에 해당하는 자모음은 1대 1로 교육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천안 시내에 위치한 대학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다문화교육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적 포용 사회를 실현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가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6년째 해오고 있다는 이규배 성환초등학교(다문화학급) 교사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학교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규배 교사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어학급(다문화학급)에서 생활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워 원적학급으로

- 4 신부초등학교 한국어학급 수업 현장
- 5 중도 입국 학생들이 천안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
- 6 천안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세계문화체험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활언어가 되지 않으면 원적학급의 담임, 친구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문화학급에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들은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점차 학교와 멀어지게 되고, 한국어가 서툴러 입을 닫으면서 교우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화하여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석희 신부초 교감은 “외국처럼 인큐베이팅을 거쳐 학교에 들어오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쉽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아이들이다. 센터를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들도 교육, 급식, 교우관계가 가능한 학교를 더 선호한다.”라며 “지금의 다문화교육 시스템은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설명한다.

“다문화학급 아이들과 영화체험을 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영화관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두 일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기가 쉽지 않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를 누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니은도 중요하지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문화를 ‘다름’이 아닌 ‘다양함’으로 인식하고 세계시민을 키우듯 다 함께 가는 교육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규배 교사의 말이다. ⑤



##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말한다”

### 강한민(신부초) 교사

“한국어학급에서도 아이들의 수준차가 존재하고, 일상용어와 교과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3개의 한국어학급 외에도 교과적응 수업을 해오고 있다. 6~12개월 정도 어휘 중심으로 교과적응 수업을 진행하는데, 용어나 어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과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효과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다문화 학생들의 출신국이 12개국이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가정통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12개국의 모든 아이와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 이규배(성환초) 교사

“개인적으로 원적학급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활언어가 되지 않으면 원적학급의 담임, 친구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문화학급에 들어오는 순간 이 아이들은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점차 학교와 멀어지게 되고, 한국어가 서툴러 입을 닫으면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심화하여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문화학급(한국어학급)에서 생활언어를 빠르게 익혀 원적학급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윤연한(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다문화교육을 학교 밖의 대안교육 형태로 가야할지, 학교 안의 한국어학급(다문화학급) 형태로 가야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신부초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녀를 한두 명씩 보내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러시아계 아이들이 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우리 센터만 해도 신부초에서 10명의 학생을 위탁하지만, 신부초를 제외하고는 각 학교에서 한두 명씩 위탁하는 상황이다.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예비학급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 김형근(천안시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사

“센터에 입소하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고 아이들의 수준 차이도 있다.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무학년제로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 때문에 한국어의 기초에 해당하는 자모음은 1대 1로 교육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천안 시내에 위치한 대학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





# 권일한 삼척 미로초등학교 교사 책과 도서관이 있으니, 우린 행복한 부자!

‘난 아주 행복한 부자야. 내겐 책과 도서관이 있거든.’ 산골학교 책벌레 선생님의 소소한 행복은 이처럼 책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삼척 미로초등학교 권일한 교사. 수업시간 중에도 도서관놀이 등 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책놀이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모형을 디자인해 가는 중이다.

산골에서 나고 자라 산과 개울, 자연을 사랑하는 선생님, 유독 글쓰기와 책을 좋아해 별명 또한 예외 없이 ‘책벌레 선생님’이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3학년 전 교과 수업에서도 교과서 외에 책은 빠지지 않는 학습도구다. 이를 하여 ‘책놀이 수업’이다. 올해로 교직생활 25년째를 맞는 강원도 삼척시 미로초등학교 권일한 교사. 지난해 8월에는 25년 교직생활의 소회를 풀어놓은 교단일기도 책으로 냈다.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다.



권 교사는 초임시절 겪었던 시행착오들도 마치 고해성사 하듯, 이 책 안에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꼭꼭 찾아라, 아이 마음 닫힌다’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권 교사는 “아이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초기에는 그들과 어설픈 숨바꼭질만 해 온 것 같다.”라고 술회한다. 그러했기에 그는 요즘도 산골마을 아이들의 꼭꼭 숨겨진 마음을 ‘술래처럼’ 찾아 나서곤 한다.

“교직생활 부임 이후 절반 가까이의 시기를 산골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죠. 그렇다 보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지금 반 아이 중에서도 부모님과 같을 때 마음에 아픈 아이가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특히 가정방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은 힘들거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꽂꽂 숨기기 마련인데, 자주 찾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 마음은 금세 또 달라지곤 합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권 교사는 “산골학교 아이들의 일기, 혹은 짧은 글쓰기는 그 자체로 시”라고 말한다. 선생님을 믿고 자신의 눈물 어린 내밀한 이야기, 저릿한 아픔들을 글로써 고스란히 꺼내어 보여주던 아이들. 혹은 선생님을 절로 미소 짓게 할 만큼 순수하고 예쁜 글을 써내는 아이들도 많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기록을 오래도록 남겨주고 싶어 만든 문집 <그루

터기>는 1994년 처음 세상에 첫 선을 보였었다. 월간, 보름간,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엮이면서 아이들의 문집은 어느새 170여 호까지 채워졌다. 그리고 사랑스런 이 기록들은 학년말, 단행본으로 다시 엮이면서 그의 교직 햇수와 같은 25권까지 만들어졌다. 해마다 꾸준히 나오는 문집을 보면서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반색하며 기뻐했던 건 물론이다. 권 교사로서도 교직생활 동안 무엇보다 ভাল 일 중 하나로 휴간 없이 지속돼 온 <그루터기>를 꼽고 있다.

“<그루터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처럼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뜻으로 정해지게 됐죠. 잘려진 나무에서도 다시 싹을 틔우는 그루터기가 되자는 뜻도 있고, 아이들에게 ‘나눠줌’과 ‘소망’에 대해 일깨워주자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 책놀이 맞춤교실, 아이누리 책동지

권 교사가 지도해 온 책읽기, 글쓰기 수업은 최근 교외 문예제전에서도 단연 도드라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2019 농어촌 청소년 문예제전’에서 변다인 학생(산문)은 최고상인 대상을, 김가은(산문)·허예은 학생(시)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인 ‘우리 집, 진짜 없는 게 없다’는 산골마을에서 일어날 법한 뱀 출현 소동을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활달한 문체에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늘처럼 클 수도

1 책벌레 선생님, 권일한 교사  
2 25년째 만들어 온 학급문집 <그루터기>  
3 학교 도서관 ‘아이누리 책동지’에서의 책놀이 수업







권일한 교사를 닮아 책놀이를 즐기는 3학년 아이들

작을 수도 있는/바다처럼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는/수학 문제처럼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알송달송한(알송달 송한) 사람의 마음. 하략!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제목의 제법 어른스런 통찰과 철학적인 시를 써낸 예은 학생의 작품 또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현재 5학년인 다인·가은인 지난해 권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다.

취재 당일, 기자가 이들 세 학생들을 우연히 만난 곳은 도서관 '아이누리 책동지'다. 입구에는 친구들이 오가며 읽을 수 있도록 백일장 수상작들은 물론 여러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곳 도서관에서는 권 교사의 책놀이 수업과 7교시 방과후학교 글쓰기 수업도 진행이 된다. 이 공간은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개방, 마을 도서관 기능도 겸한다. 권 교사가 매년 기획하고 주관하는 여름방학 도농교류 독서캠프도 이곳에서 열린다. 캠프에서 처음 만나는 초면의 아이들은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친해지게 마련. 권 교사는 “참가 학생들은 자기소개 책놀이,

모듬 책놀이 등 책과 연관된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서먹했던 거리감은 곧 눈 녹듯 사라지곤 한다.”면서 독서캠프 기간의 책놀이 활동들도 소개했다.

“이 ‘아이누리 책동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난방 시설까지 새로 들였어요. 해서 독서캠프를 할 때는 아이들의 숙소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요. 또 평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러 편안하게 읽고, 뒹굴면서 책과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놀이 수업, 무척 재밌어요!”**

지난 10월 18일, 3학년 학생들의 5교시 책놀이 수업. 권 교사는 먼저 ‘모듬 만들기’ 활동으로 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모듬 형성에 사용될 활동지는 <행복한 교육> 9·10월호 표지. 두 권의 표지를 인쇄, 절반으로 자른 뒤 학생들이 각자 한 장씩 뽑게 했다. 뽑은 그림이 맞는 친구끼리 2인 1조, 모두 4개의 모듬이 만들어졌다(전교 학생이 60명인 미로초

교의 3학년은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듬명도 뽑았던 활동지 안에서 글씨를 직접 골라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제주’, ‘강화’, ‘예술교육한마당’, ‘교’, 네 가지의 재미있는 모듬명이 정해졌다.

첫 번째 책놀이 수업은 국어과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130~133쪽). 권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등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책 제목을 찾아오도록 했다. 주어진 시간은 3분. 종료시간이 임박하자 “책 제목에서 찾지 못하면, 책 안에서 찾아도 된다.”라는 권 교사의 추가 주문이 제시됐다. 예린 학생은 “피부가 보들보들해요”처럼, 촉각의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의 책을 찾았고, 박정후 학생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입니다.”라는 문장을 찾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낭독했다. 서가를 분주히 오가며 책을 찾던 정후 학생에게 기자가 살며시 다가가자 “저, 3분 안에 책 찾았어요, 하하. 책놀이 수업은 할 때마다 재밌어요.”라면서 웃어보였다.

**책은 곧 행복한 대화의 매개체**

“책놀이 수업은 국어교과는 물론 수학, 사회, 과학, 체육 등 전 교과를 아우릅니다.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읽어야 할 책이 서가의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돼요. 오늘 수업처럼 아이들이 찾기 쉬운

과제는 2분 혹은 3분, 낱말을 활용할 때는 5분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 놀이방식에서도 세부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권 교사가 들려주는 이 책놀이 수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하는 놀이형식을 통해 즐겁게 배우게 하는 것이다. 특히 수학교과 책놀이의 경우 책 속의 그림과 사진을 직접 찾으려서 그 속에 담긴 원리와 개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두려워 하던 논설문 형식의 글쓰기도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2가지씩 써 볼까?” 하는 식으로 책놀이와 함께 풀다 보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따라하게 된단다. 이곳 미로초교 ‘아이누리 책동지’ 정면 벽면에는 권 교사가 올해 초 직접 새겨 넣었다는 글귀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난 아주 행복한 부자야. 내겐 책과 도서관이 있거든.’ 권 교사는 “책은 곧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좋은 매개체”라면서 책벌레 선생님으로서 누리는 소중한 행복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이제까지 책과 관련 <글쓰기가 좋아졌어요>(2009),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책 이야기>(2011), <행복한 글쓰기>(2015), <학교에서 외계인을 만나다>(2017),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독서토론>(2016)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이어온 권일한 교사. 이제까지 지도해 온 책놀이 수업 자료를 엮은 <책놀이, 도서관놀이>로 또 한 권의 노작(勞作)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㉞



특명! 감각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책을 찾아라.



## 행복한 인생설계 프로젝트

# ‘진로탐색+인생설계’ 삶의 단추를 채워볼까?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수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프로젝트 학습(PBL)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현실 기반 진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업 방법이다.

### 나의 삶을 설계하는 특별한 수업

천안청수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 시간에는 국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핸드폰을 활용한 정보 탐색,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과 갤러리워크 폼보드 만들기 활동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모둠별 계획서와 일정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모둠별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주제는 모두 학생들이 직접 정한 것들이다. 자신의 진로를 반영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기에 자발성이 높고 대입 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도 높다.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에서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성취기준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12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모둠별 탐구활동 중인 학생들  
3 갤러리워크 전시물

‘나는(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 ‘내가 선택한 직업은 앞으로 꼭 필요한 직업일까?’,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나가며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행복한 인생 설계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한다.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언제 행복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사색하는 한편,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미래 예측하기 활동을 한 후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설계를 위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

오승민 학생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과 디자인 전문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고민했다. 그 결과, ‘포스트 디자인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만들고 지체 장애인, 제3세계 사람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디자인 사례를 찾고 TED 강연을 보며 자료 수집을 했다. 그 결과, 포스트 디자인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 미래 계획을 친구들에게 갤러리워크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요리사를 꿈꾸는 이희진 학생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 행복을 이뤄나가기 위해 미래의 요리를 탐색하고, 유전자 조작 문제, 곤충 식량의 가능성 등을 DBpia와 뉴스 기사, 인터넷 전문 자료 등을 검색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 앞으로의 식량과 요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친구들에게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이 진로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진로 고민을 이어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이해준



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미래의 전망 직업을 조사하고, 휴대폰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친구들의 인식을 파악했다. 그리고 뉴스 기사와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이 밝은 직업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전시할 결과물을 만들어 갤러리워크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꿈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학생들은 모둠을 만들고 모둠 썩기 활동을 통해 모둠 활동의 규칙을 명확히 한다. 이후 비주얼 씩킹 활동을 하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가치관을 명확히 한다.

국어 과목답게 문학 작품도 다룬다. 천상병 시인의 ‘행복’과 최영미 시인의 ‘행복론’은 프로젝트 초반의 핵심 수업 주제이다. 시를 읽고 하브루타 활동을 하며 행복에 대한 작가의 인식 차이를 모둠원과 함께 이해한다. 그리고 두 시 중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시를 찾아 비평문을 쓰며





4 행복한 인생설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백순우 교사 5 애니메이션 가상과 실제를 발표하는 학생 67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 행복관 등을 충분히 탐색하고 고민한 후에 탐구 주제를 정한다. 개인 탐구 중인 학생(6)과 도서관에서 모둠 탐구 중인 학생들(7)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선생님의 꼼꼼한 피드백으로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교과서와 신문 기사 속에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을 뉴스 기사로 보고 모둠별 토의를 통해 자신들의 근거를 마련하여 견해를 표현한다. 이때 인용과 정보처리, 비판적 사고 등의 성취기준들을 융합하여 학습한다.

**나의 가치관, 행복관, 그리고 나의 진로**

자신의 가치관과 행복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지속하게 되고 시야가 한층 확장되어 자신의 진로를 친구들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모둠만의 탐구 주제를 정한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최진희 학생은 '미래의

우리는 쓰레기를 입을 것인가?',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영경 학생은 '미국을 점령한 K-POP', 한국 예술 문화와 안무 발전에 관심이 많은 유다빈 학생은 '예체능 산업, 한계는 없다!'라는 주제로 탐구를 했다. 주로 진로와 관련된 탐구 문제를 설정하지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은 '최저 임금 문제, 찬성과 반대', '미래의 직업 전망', '행복의 기준' 등 사회 문제나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할 수도 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유진서, 강다현 학생은 '애니메이션 가상과 실제'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속 스포츠와 현실 스포츠를 비교·대조하며 애니메이션 사업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정보 탐색 과정에서 정보처리능력과 정보 윤리를 학습하며 DBpia, TED, 뉴스 기사 등을 검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필요에 따라 선생님의 미니 강의로 있고, 언제든지 선생님의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구글 공유 문서에 심화 국어 수강생들이 모두 연결되어 다른 친구들이 어떤

탐색 활동을 지속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다. 정보는 모둠원들이 함께 축적하고 출처를 꼭 밝히며 공개할 결과물로서 자신들만의 갤러리워크 자료를 생성한다.

**탐색과정에서 정보처리능력·정보 윤리 배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데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된 학생들, 진로가 명확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너무 거리감 있는 국어 수업을 들어왔던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마음껏 찾아볼 수 있다. 내가 택한 주제, 내가 택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하니 재미도 있고 친구들과 협업 능력도 쌓아나갈 수 있다.

선생님의 강의가 줄고 학생들의 활동이 늘어나자 수업에 활기가 생겼지만 방향을 잘 찾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일정표'와 '평가 루브릭', '계획서'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일정표와 평가 루브릭을 참고하여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모둠의 결과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수업 내내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막상 공개할 결과물을 가지고 갤러리워크 활동을 진행하니 신이 나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설명했다.

평소 말하기 불안을 가진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다.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과정중심평가로 모둠 간 상호평가, 모둠 내 상호평가, 자기평가가 성적에 반영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는 평가 주체가 다양화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 주체가 확대 되니 평가 결과에 대한 납득도 더 쉽게 가서 내신이라는 목줄이 있는 아이들의 항의가 줄어들어 교사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다. 어떤 학습도 학생의 본질적인 행복과 연결된다면 동기 유발이 된다.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함께 더 멀리 가는 '교사학습공동체'**

필자가 이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이다. 충청남도 교사학습공동체 '배움의 숲 나무학교'에서 성장교실 운영팀에서 활동하면서 'PBL센터', '수업독서단' 등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며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 고민을 지속하고 비평과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원동력이 한 학기 동안 포기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도록 했다. 혼자 가는 것은 멀리 가지 못한다. 함께 간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㉔

**[ 백순우 교사의 교육 TIP ]**

- 1 **모둠 쌓기는 충분히!** 학기 초 수업 시간을 아깝다 생각 말고 모둠 쌓기와 규칙 정하기 시간을 충분히 가져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2 **탐구 질문으로 동기를 유발!** 학생들이 실제성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과 밀접한 탐구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탐구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다.
- 3 **학생의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활동은 힘을 잃는다. 스스로 택한 활동은 책임감 있게 가지고 간다. 그 과정에서 원래 수업을 많이 수정하거나 선생님의 의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모둠 탐구지만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혼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대신 혼자 하는 부담도 학생 스스로 감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한다.
- 4 **시작은 과감하게!** GSPBL(Gold Standard PBL)은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 학습 형태이다. 이 형태를 완벽히 따라가는 것은 업무와 행사로 힘든 교사들에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니, 몇 가지 요소들을 충족하면서 일단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변화에 대한 초기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전영우·김아나 무아 공동대표

#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해 손잡은 청년들 “전 세대 공감하는 콘텐츠 만들래요”



흔히 전통문화는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무아(공동대표 전영우·김아나)는 민화 에코백 만들기, 단청 저금통 만들기 등 DIY 상품과 무궁화를 담은 스마트폰 스트랩 등 전통문화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으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무아를 함께 이끌고 있는 전영우, 김아나 대표를 서울 중구 충무창업큐브(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와 서울시 중구청이 연계해 조성한 청년창업공간)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대학 휴학 중이던 지난 2015년 무아를 설립했다. 창업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전 대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했는데, 그곳 청년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모습이 참 부럽고 좋아 보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고민해보니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사업 아이템 구상에는 김아나 대표가 힘을 보탤다. 대학에서 불교미술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주말 어린이 법회 강사로 활동하면서 체험활동용 교구재가 턱없이 부족하던 것을 깨달았다. 이에 두 사람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교구재를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동업을 결정했다. 국제통상경영학을 전공한 전 대표가 경영을, 김 대표가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을 맡는 분업으로 무아가 탄생했다.

## 전통문화 소재 체험상품·교육 프로그램 제작

무아란 나와 남을 구분 짓지 않는다는 불교의 근본 사상 ‘무아(無我)’를 뜻하는 동시에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1 왼쪽부터 김아나·전영우 무아 대표  
2 무아의 대표 상품 ‘마인드래치’와 스마트폰 스트랩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텍스트 위주의 딱딱한 교육이 아닌,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재미있게 전통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무아의 목표다.

무아의 대표적인 상품 ‘마인드래치’는 스크래치 페이퍼를 긁어 민화나 만다라(불화), 칠보문양을 그릴 수 있는 체험상품이다. 키트 형태로 제공돼 다른 준비물이 필요 없고, 관련 교육용 자료도 제공돼 편리하다. 덕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과 치매안심센터, 노인돌봄센터 등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고

김 대표는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다 보니 어린이로부터 노인분들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자체제작 상품 외에도 박물관 등 기관이나 단체에 맞는 체험상품을 주문 제작하는 B2B(기업 간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창업, 주도적 삶을 사는 아이로 키우는 과정”

물론 처음부터 탄탄대료가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창업 후 2년간은 주말 없이 매일 밤 10시까지 일에만 매진했다. 특히 창업 초기 자본금이 부족해 어려웠던 시절, 두 사람은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와 정부 지원사업에 뛰어들며 받은 상금을 십시일반 모아 직원들 월급에 보탤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스타트업 취업 인식개선 공모전’ 최우수상, 교육부 ‘대한민국 인재상’ 등 굵직한 수상경력도 얻었다.

전 대표는 “무아는 처음에 조그만 아기였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신경 써야 했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굴러가기도 한다. 창업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이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적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 진출…공간기획도 계획

예비부부기도 한 두 사람은 공동대표로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의지하는 파트너가 됐다. 창업 이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서로 싸웠을 때”라고 꼽은 김 대표는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오히려 연인 사이여서 속 깊은 얘기까지 털어놓으니 갈등을 풀기 수월했다.”라고 답했다. 전 대표는 “대표는 힘든 얘기를 직원들한테 할 수 없고, 책임감도 막중해 참 외로운 자리다. 그런데 또 다른 대표가 있으니 서로 공감해줄 수 있고, 일하다 보면 두 명 이상의 효율이 나기도 한다.”라고 했다.

무아는 앞으로 새로운 자체제작 상품을 기획하고, 특히 한국적인 콘텐츠를 담은 상품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노릴 예정이다. 추후에는 한국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김 대표는 “어떤 길로 가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재미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불행보다 행복이 높은 삶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 대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②



글\_ 김경민 명예기자

# 제142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그 실제와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 읽기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KEDI)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42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3부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교육의 성과 관리 지표로서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및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의 수준과 발전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2013년부터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7년간 지속하고 있다. 매년 100개 내외의 대학들이 학생 및 교수 설문조사에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 대학교 신입생들의 고등교육 진입단계 및 첫 학기 학업 적응에 대한 '고등교육 신입생 실태 조사'도 새로 시작되어 2019년 본 조사 시기를 맞이하였다. 두 과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진입 단계'와 '과정 단계'를 연결하여 대학의 학습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성과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 세션은 '대학별 정보의 연계·분석을 통한 조사 자료의 성과관리 활용 방안'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천대학교 황지원 교수는 '대학별 조사 자료의 교수학습 수준 모니터링 지표 활용 방안'을 통하여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조사와 신입생 조사 연구의 결과 활용도 제고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 자료의 대학별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승주 부연구위원이 「개인 정보의 연계·분석을 통한 대학 성과관리의 새로운 접근 영역 탐색: 대학별 사례연구 성과 및 발전과제」로 2019년의 연구 분석 결과 환류를 통한 다양한 대학 내 데이터와의 연계분석 모형을 제언하였다.

### 대학생의 응답에서 교수·학습 개선 방안 찾는다

2부 세션은 '2019년 신입생들의 첫 학기 학업 적응과 경험, 그리고 고 기대'를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재영 부연구위원이 「대학 신입생 중 관심 집단 심층 분석 사례: 대학입학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된 학생, 그리고 선취업 후진학 학생」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의 초기실태 관련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 할 때 이질적 성격의 신입생 집단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에 대학 입학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된 학생, 선취업 후진학 학생을 관심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였다. 공주대학교 함은혜 교수의 「대학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과정 변인 분석」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성과 분석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실증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3부 세션은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마련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지하 고등교육연구본부장이 「대학생 학업 중단 의도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운 연구위원이 「대학생 참여 학습 유형분석: 저성과자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 연구들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NASEL의 조사와 신입생 조사(2019년 기준 일반대 48개 학교 9,052명, 전문대 16개 학교 3,088명 참여)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NASEL은 일반 대학의 경우 7년, 전문대학의 경우 3년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어 있지만, 오랜 자료 축적 기간에 비하여 대학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효과와 활용도 아직 부족한 편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안정적인 샘플링을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사례가 해당 대학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NASEL 조사 및 신입생 조사 결과가 대학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활용될 가능성의 실재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었다.

글\_ 고영성 명예기자

## 진원동초 학생들, 벼 수확의 기쁨 만끽!



장성 진원동초등학교(교장 나미숙) 학생들은 10월 22일 지난 6월에 심은 텃논의 벼를 수확하였다.

진원동초 학생들은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생명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자 친환경 벼농사 체험을 매년하고 있다. 이날은 논이 테두리 부분의 벼를 낫으로 직접 베어 훑태로 털어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수했다. 진원동 가족 모두가 벼를 수확하는 데 손을 보탬 뒤, 콤바인을 이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추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책이 아닌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심은 벼를 수확하고 털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음식이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글\_ 노호룡 명예기자

### 2019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고교학점제 현장안착 방안을 찾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9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 11일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포럼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졸업제도 및 학생평가 방향을 두고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기준 설정 방안 모색이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 것은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다. 과목 출석률 2/3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둘 중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이수(F)에 해당해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과목 출석률 기준 적용에 따른

출결상황 관리의 근거 마련은 교과 이수기준 설정을 위하여 '과목 수업 횟수', '결과', '과목 지각', '과목 조퇴' 등의 주요 개념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교과 이수기준 적용에 따른 지원 방안은 이수과정에서의 미이수 예방 방안과 미이수 후속 과정에서의 지원 방안으로 나뉜다. 미이수 후속 지원 방안은 보충이수, 재이수, 대체이수 방식의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졸업제도 방안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교과 이수기준·학생평가 개선방안 논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생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평가의 쟁점으로 '학년별 평가에서 교사별 평가로의 전환 여부', '성취평가제와 같은 준거 참조 평가 방식의 적용 수준', '평가의 질 관리 체계', '과락 과목 재이수 문제' 등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 과제가 교육가족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교육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 [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제도 운영방안

- (1) 졸업요건(안)은 교육과정 이수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한다.
- (2) 수업연한 유연화 방안(안)은 현행대로 수업연한 3년을 유지하고, 조기졸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면서 졸업유예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 (3) 진급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서는 학년제 기반 일부 과목의 무학년 수업 도입을 한다.
- (4) 졸업학점에서 1학점 수업량은 1회 수업은 50분으로 하고, 학기당 횟수는 16회로 한다. 졸업학점은 현행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204단위)보다 적게 설정한다. (현행 교과 단위 180단위 감축, 현행 창의적 체험활동 단위 24단위 감축)
- (5)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과 자율 이수 학점 비율은 현행 비율(94단위:86단위)을 유지한다.

글\_ 김영근 명예기자

### 위기 상황 속 대피요령, 몸이 기억하게 하라!

생활 속에서 안전이 최고다. 위기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판단을 잘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구 이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강호순)은 화재나 비상시에 유아들도 적응할 수 있는 완강기 안전체험교육을 지난 10월 22일 실시하였다. 유아들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 배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현초등학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희망관(체육관)에 완강기 시설을, 제1 체험실에서는 보행 안전, 차량 안전, 자전거 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제2 체험실에서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체험, 지진체험, 가정의 전열 기구 사용법, 수상안전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구명조끼 사용법,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구명환이나 렉스 큐를 이용한 구조 활동, 텐트 사용법 등을 체험한다.

이날 유치원생들은 희망관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고층 건물이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익혔다. 화재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의 시범을 본 후 희망하는 원아들은 체험해보았다. 조아영 원아는 "어쩐지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타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줄에 매달려 내려오니 떨어질까 봐 무서움도 들었다. 땅바닥에 내려오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라고 하였다.

글\_ 문승욱 명예기자

### “빨리 마셔~ 나도 물 마시고 싶단 말이야~”



장흥 부산초등학교(교장 신봉휴)의 어느 날 점심시간 풍경이었다. 점심 식사 후 아이들에게 배려와 기다림을 가르치기 위해 1학년 권원자 선생님의 센스 있는 교육으로 인해 한바탕 재미있게 웃고 말았다.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을 발휘한 작은 꼬마들이 마냥 귀엽기만 하였다. 먼저 먹고 있는 한서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일까? 빨리 먹으라고 말하는 친구들, 갖은 품으로 쳐다보는 친구들. 조금씩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었다.



글\_ 이수진 명예기자

### 독서마라톤대회, 1박2일 밤새워 책 읽다!



2019년 대구 울트라독서마라톤 대회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대구역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지만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울트라 독서는 어떨까 하는 것에 강한 호기심을 느껴서 본 기자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토요일 정오에 시작된 본 독서대회는 50분 독서 후, 10분 휴식

을 기본으로 다음날인 일요일 정오까지 총 21번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대구역 앞쪽 광장에 커다란 천막을 친 후, 책걸상을 300개 정도 준비해두고 참가자 모두가 울트라독서마라톤대회 행사 티셔츠를 입은 채 실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등에 번호를 붙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져들었다. 중간에 졸게 되면 노란스티커(옐로우카드)를 받게 되는데, 스포츠 경기처럼 세 번 경고를 받으면 퇴장해야 한다.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 중에 완주한 사람은 50여 명이었다. 아쉽게 본 기자는 완주를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과 함께 열심히 책을 읽었던 소중한 경험을 영원히 잊지 못할 듯하다.

글\_ 신현태 명예기자

### NEXT MEDIA 교육을 만나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가 'NEXT MEDIA 교육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0월 18~19일 양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여 명의 교사, 미디어 교육 관계자,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대회는 해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지향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간에 걸쳐서 미디어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미디어 교육 시상,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래, 미디어 리터러

시 네트워크, 교사학습공동체들의 성과 발표, 특강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별히 미디어 교육 트렌드 보기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래 쪽지는 분반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각자의 관심 속에 더욱더 열띤 호응과 참여 속에 수업이 이루어졌다. 각 분반 강의실은 주말도 반납한 채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기로 가득했다. 교사학습공동체들의 성과 발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과 생생함의 산물들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현장의 노력과 헌신, 관심 있는 미디어 교육 실천으로 아이들도 적극적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주체적인 생산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디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 II 특별기획



#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을 위한 노하우

- 1\_ 고3 예비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
- 2\_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학년말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 고3, 예비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

# 경쟁에 지친 아이들 보듬는 학년말 프로그램 필수



### 01 일생에서 가장 편한 마음으로 미래 준비하는 시간

매년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관련 이슈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수능을 경험한 국민들은 저마다의 잊을 수 없는 찰을 풀며, 그 시절을 추억한다. 유난히 추웠던 수능 한파, 경찰 오토바이로 긴급 수송된 수험생,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 큰절을 올리는 수험생, 국가의 교통망을 정지시키는 영어 듣기평가 등등. 이렇듯 수능일은 수험생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수능을 경험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능 시험장의 긴장감과 해방감을 주로 기억하지만, 일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잊고 살아간다. 바로 수능 이후 고3의 시간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이후의 오후 수업을 수능 이전에 미리 당겨서 진행하거나 수능 이후 정규수업을 수능 이전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실시해 오전만 운영하는 탄력적 학사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고3 학생들은 이 시간을 느슨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고3 학생들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가장 원하는 것

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고3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루의 시험에 건다고 생각할 만큼의 처절함, 그것들의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심리’가 있다. 심한 경쟁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고3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줄 만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 모두가 똑같은 정답을 찾는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창조적, 혁신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즉 회복교육과 미래교육 측면으로써의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02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체험하는 기회로

먼저 전국의 모든 고3 교실의 공간혁신을 제안하고 싶다. ‘지금 공부 안 하면 10년 뒤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부모님이 보고 있다.’ 등 자극적인 급훈을 떼 버리고, 수능 다음날 반 학생들과 함께 졸업 때까지 함께 할 급훈을 만들어보자. ‘수고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이제 함께 행복하자’와 같은 급훈은 어떨까? 새 급훈을 달고

나서는 우리 교실의 공간을 아이들만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자. 책걸상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드러운 바닥 매트, 화사한 벽지로 바뀌가며 교실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보는 것이 좋겠다. 간단한 공간의 혁신에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구현되며, 이전까지의 획일적, 통제적 공간을 타파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 활동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메이크업·뷰티 수업, 체육활동, 나아가 패션 수업과 퍼스널 트레이닝 혹은 바디 디자인 수업을 통해 자신을 소중히 가꾸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형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발표를 통한 자기표현 기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가령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티셔츠 패션쇼나 2월 졸업 전까지 몸짱 선발대회 등 건전한 경쟁심의 여지도 남겨두면 좋겠다.

### 03 성년 앞두고 올바른 가정관, 경제관 필요

고3 학생들은 성년을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성인지 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 장애이해 교육, 유권자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건강한 가정에서 굳건한 국가가 나오듯이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특히 이 시기에 절실하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도 필요한데, 고3 못지않게 느슨해지기 쉬운 학년이 중3이다. 인근 중학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고3 아이들의 학교생활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과정 속에 고3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상승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하는 단기 프로젝트 운영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적 인재 탄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위한 경제

교육도 필요하다. 예비 사회인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와 신용관리, 종잣돈 만들기 등 실생활에서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메이커 교육이다. 미래 사회는 창의성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심화된 학문을 연마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과도한 스펙 쌓기와 또 다른 경쟁의 출발점 앞에서 선 고3 학생들에게 색다른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창업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메이커 교육은 아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 자체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집단 천재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04 고3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은 선택 아닌 필수

다양한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학교라는 네모난 굴레 속에서 수능 이후 최고의 동기 상실을 맛보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부모와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으로 꺼져 있던 동기의 불꽃을 살려줄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수능 이전에 이미 수능 이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수능을 마친 고3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거북목이 될까 염려스러울 만큼 폰 게임에 열중하고, 몇십 편의 영화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그것도 아니면 숙면을 취하다가 가는 무기력한 학교, 그것 또한 12년간의 고생의 대가로 허용되고 눈감아주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훌륭한 교사들의 아름다운 바통터치를 통해 8세의 아이를 19세까지 잘 키웠다. 교사로서의 마지막 임무, 대한민국의 멋진 성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고3의 수능 이후 알찬 학사운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

# 학년말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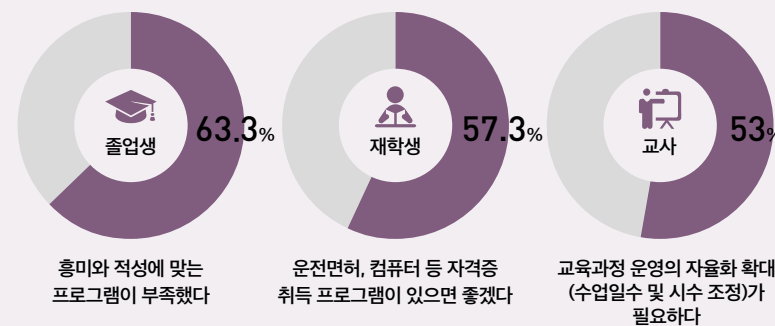
진학·취업 준비  
자기계발 시기  
탄력적 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 요즘, 대입 수시전형에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 까지 반영되면서 학년말까지 긴장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수시전형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과 정시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의 마지막 대학 입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시험을 기점으로 교육과정은 더욱더 느슨해진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경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 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 시기를 진학 및 취업 준비, 자기계발 시기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사 및 학생 설문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은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재학생은 운전면허,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교사는 수능 이후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시수 조정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9개 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그림] 설문 대상별 주요 응답(총 28,524명)



운전면허·자격증 등 예비 사회인 맞춤 프로그램 70여 개 제공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함께 나서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특별기획 II

## 예비 사회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01 운전면허(안전) 교육 프로그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예비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 '운전면허 가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능이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약 4~5주간 진행되며, 9개의 기관(서울 도봉·서부·강남·강서, 경기 의정부·안산·용인, 강원 원주, 경북 문경)에서 시범 실시된다. 운창호법 등을 반영한 응시 전 교통안전 교육용 동영상 시청과 더불어 최근 교통사고 유형 및 안전운전 방법, 운전면허 취득 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5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 도봉·서부, 경기 의정부·안산·용인)에서는 면허시험장 방문교육으로 이뤄지며 운전면허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로 인정되며 곧바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4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 강남·강서, 강원 원주, 경북 문경)에서는 면허시험장에서 관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고3 학생의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02 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11월 14일 이후 매주 화요일 전국의 고3 학년생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전국 53개 상설시험장과 학교 간에 매칭을 완료하여 상설시험 일정을 개설, 운영한다.

먼저, 학교와 지역상공회의소 간에 희망 시험 일정을 사전협의하고 이미 기관등록을 마쳤으며,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을 공지하면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다. 이때 학교에서 응시명단을 취합하여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단체접수(<http://license.korcham.net>)하면 된다. 고3 학생들을 위한 상설시험이지만 필기에 합격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실기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 03 근로교육 프로그램 (고용노동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에서는 졸업과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될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노확행-노동을 통해 찾는 확실한 행복(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법 △취업준비생을 위한 노동법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안 △노와 사가 함께 만드는 우리 일터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사전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청소년 노동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월 단위로 모집,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11. 25.-12.5.까지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s://elti.koreatech.ac.kr>)를 통해 신청하면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핵심근로기준법과정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 권익보호 이해과정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 △웹툰·동영상으로 보는 꼭 알아야 할 노동법상식 등을 배울 수 있다.



### 04 금융 프로그램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취업,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될 예비 사회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14일부터 학년 종료일인 2020년 2월 29일까지 '1사 1교 결연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결연을 맺은 학교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되, 미결연 학교는 유관기관, 대학 생방송단 등을 활용해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재)케이에스디나눔재단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똑똑 경제똑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현금 없는 사회, 전자증권 발행 등 최근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살펴보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준비방법을 소개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경기 고양시 소재)에서는 증권박물관과 연계한 금융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역할, 저축 투자, 신용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금융상식 △주식과 채권의 이해하고 모의주식투자를 체험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생애설계, 현명한 소비, 금융사기, 나눔 정신 등의 '고3 사회 새내기 금융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12월 중에는 금융뮤지컬 '미스e의 시크릿 머니'라는 공연도 기획되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예비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금융생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생활 △청년을 위한 신용관리 △청년 종잣돈 만들기(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상품 및 제도) 등의 생활 속 경제 노하우를 소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신용교육', 국세청에서는 전국의 7개 지방청과 세무서 혹은 학교를 방문하여 세금의 전반적 소개와 생활 속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금교육'을 실시하니 고3 마지막 학기에는 금융교육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교육을 배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금융상품, 신용관리, 학자금 대출, 부동산 계약, 금융사기 방지 등 실생활에서 유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룬 동영상 탑재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www.fss.or.kr/edu](http://www.fss.or.kr/edu))에서 신청 가능하다. KSD나눔재단(<https://nanum.ksd.or.kr>, 온라인 금융교육)과 한국예탁결제원(유튜브 채널, 나눔재단 금융스토리)에서도 온라인을 동영상을 통해 △청소년의 금융상식 △청소년 금융투자 △청소년 기업가 △JOB아라 금융진로 등을 교육한다.

### 9개 부처가 함께 '학교 안전 특별기간' 운영



### 05 부처부내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생활지도 지원 및 사회적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하며,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 및 유해환경, 숙박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각종 사고 예방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교육자료도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어울림 프로그램([stopbullying.re.kr](http://stopbullying.re.kr), 동영상 등), 문체부의 문화예술자료([www.mcst.go.kr](http://www.mcst.go.kr), 게시판), 여성가족부의 예비 부모교육([www.mogef.go.kr](http://www.mogef.go.kr), 동영상·pdf·ppt) 등의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





# ‘한글 책임교육’으로 초등학생의 고른 출발 지원

## ‘한글 책임교육’ 왜 필요한가?

‘옆집 ○○는 유치원도 안 다녔는데 동화책을 술술 읽어요.’  
‘○○집 애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벌써 일기도 쓴다네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애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무리한 한글 선행학습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아이의 학습능력을 넘어서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적응력을 가늠하는 잣대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글 책임교육을 강화한 것은 한글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학교 현장의 한글교육 강화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많은 학부모가 취학 전 자녀들에게 한글 선행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조바심,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욕심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충분히 잘 익힐 것이란 기대보다 믿고 맡기기 어렵다는 불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 한글을 익힌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한글학습에 흥미와 관심이 떨어져 스스로 궁금한 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행학습 정도와 한글 이해수준의 차이로 출발점이 서로 달라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한글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글 선행학습의 부담을 없애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읽고 쓰는 기초 한글 능력을 기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한글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발선 평등을 지원하는 ‘한글 책임교육’을 도입하게 되었다.

## 한글 교육, 학교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처음 적용된 2017년부터 한글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1학년 1학기에 한글교육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입학 초기에 한글을 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7시간에 불과하던 한글교육을 시간을 68시간까지 약 2.5배가량 늘렸다.

특히 1학년 1학기 국어시간에 51시간을 집중 배치하였다. 국어 교과서는 ‘연필잡기→자음→모음→글자의 짜임→받침 없는 글자→받침 있는 글자→겹받침’ 순으로 6개 단원에 걸쳐 놀이나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학 교과서의 경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던 문장제나 스토리텔링형 문제 대신 그림과 기호 중심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고려하여 교



과서를 개발하였다. 교과활동뿐 아니라 한글 기초를 익히는 1학년 1학기에 학생들이 한글학습을 어렵고 힘들게 느끼지 않도록 무리한 받아쓰기나 알림장 쓰기, 일기 쓰기 등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는 등 한글 해득에 집중하는 교실문화 만들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한글 책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웹기반 한글학습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토박토박’을 개발하여 학생별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모든 아이에게 1대 1로 수준별 맞춤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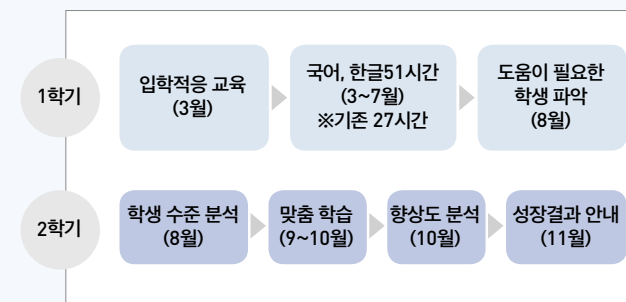
## ‘한글 책임교육’ 어떻게 진행되는가?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실시하는 한글 책임교육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3월에 입학적응 교육을 받는다. 점선 따라 긋기, 다양한 굵기의 선 그리기, 연필 바르게 잡기 등이 입학적응 교육에 포함되는 한글교육 준비 활동이다. 그 후 1학년 1학기 국어교과 시간에 51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한글교육이 이뤄진다.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7~8월)에는 학생들의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여 한글 해득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한다. 진단 후에는 성장결과지에 나타난 미해득 영역에 대해 ‘찬찬한글’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개별지도를 실시한다. 향상도를 파악하기 위해 2학기 중에 한 번 더 진단을 실시한다.

이처럼 ‘한글학습→진단→후속학습→재진단’의 과정을

[표] 한글 책임교육 흐름(1년의 과정)



거쳐 모든 학생이 1학년을 마칠 때까지 한글학습의 전 영역에서 ‘도달’ 수준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2학기 말에는 ‘성장결과지’를 각 가정으로 보낸다. 부모님들은 ‘성장결과지’에 기록된 자녀의 한글 해득 수준을 파악하고 가정에서의 기초적인 독서나 거리 간판읽기 등 생활과 밀접한 놀이형 한글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글 해득 수준은 어떻게 진단하고 보정하는가?

이전 한글교육과 가장 큰 차별성은 한글 해득 수준 진단 도구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2018년 한글 해득 수준 진단 도구인 ‘한글 토박토박’을 개발하였다. ‘한글 토박토박’의 문항은 한글 자모음의 소리 구분과 결합법칙을 이해하는 순서를 10단계로 구분하여 의미단어와 무의미단어 읽기·쓰기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한글 해득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지식을 갖추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인 ‘읽기 유창성’ 수준까지 한글 책임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한글 토박토박’에 ‘읽기 유창성’ 진단 기능이 추가된다.

‘한글 토박토박’과 보정 학습지인 ‘찬찬한글’은 직관적이고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번역된 안내자료 및 진단 결과 보고서를 탑재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해외 교포, 외국인 등이 한글 해득용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2020년 3월). 즉, 한





글을 해독하려는 사람이라면 연령, 국적,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유·초 연계 한글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치원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는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초 연계 한글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2019년에 개정된 누리과정에는 ‘한글’ 문자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한글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한글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한글교육의 특징은 ‘놀이 중심’, ‘생활 중심’, ‘주제 중심’이다. 한글학습을 할 때, 놀이를 활용한 학습활동 비중을 높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즐겁게 한글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 중심’ 특징을 살려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중심으로 한글 학습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학교 안내판, 학급 게시판, 광고지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유·초 연계 한글학습의 방법 중 하나이다.

**한글 책임교육, 더 알아보고 싶다면?**

교사는 중앙교육연수원에 개설된 ‘한글 책임교육을 위한 수업 역량 강화’ 원격 연수를 통해 한글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총 15차시로 한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진 지원 방법, 난독학생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글 책임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18.9.여론조사, 5~7세 아동 부모 ‘모른다’ 75.8%(758명), ‘안다’ 24.2%(242명)). 교육부는 예비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함께 지난 10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글 책임교육 공감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한글 책임교육 공감 한마당’은 미취학 아동 부모의 한글 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하는 소통의 자리로 한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담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기’, ‘가정에서의 놀이교육’ 등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었다. 이 행사는 2020학년도에도 몇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한글 책임교육 후속 지원과 과제는 무엇인가?**

한글 책임교육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한글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한글 책임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육도 점차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학부모 On누리 사이트(www.parents.go.kr)에 초등 문해력 교육에 대한 연수를 개설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교육 기회를 활용해 ‘한글 책임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한글을 책임 교육하고, 이후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기반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지속한다면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면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한글 책임교육’을 통해 학습의 기반이 되는 한글과 기초 문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열려 교육분야 정부혁신의 핵심사례 체험한다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에서 열린다.

처음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는 그동안의 정부혁신 성과와 우수사례를 전시하는 자리로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서비스’, ‘국민 참여’ 존으로 나눠 총 59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사회적 가치’ 존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을 주제로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구현한다. ‘디지털 서비스’ 존에서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모습을 구현하고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구성한다. ‘국민 참여’ 존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 참여 대표 플랫폼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정부혁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함께 포용하는 교육’을 주제로 박람회에 참여한다. 교육부의 정부혁신 대표사례로 꼽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학교 교실 공간 혁신 등 3가지 테마로 전시 부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교실이 곧 교사다’라는 말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공간 혁신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일군 사례들이 소개되었듯이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습과 놀이,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교실 공간을 구현하였다. 그밖에 유

치원의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과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자 체험, 초등 돌봄교실 ‘천연립밤 만들기’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





##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② 부산광역시교육청

# ‘다모아’ 앱에는 부산교육이 다 있네~

‘낮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혁신의 사전적인 의미이다. 낮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본지에서는 교육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공유·확산하고자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을 일구고 있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실>



[그림1] 부산교육 다모아 앱 화면



[그림2] 다모아 앱 활용 상황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에게 교육청 긴급공지사항과 학교소식, 학부모연수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부산교육 다모아 앱’을 개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부모들은 ‘부산교육 다모아 앱’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주요소식(학교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오늘의 식단, 학교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유용한 연수 정보, 자녀진로 도움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청 뉴스와 긴급공지를 받아 볼 수 있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진가를 발휘하는 ‘다모아 앱’

다모아 앱의 탄생은 지난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도로, 주택, 차량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면서, 부산지역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을 하고, 이후 전면휴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많은 혼선이 빚어졌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했다. 기록적인 강수량, 빗나간 기상 예보, 미흡한 하수시설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해결책을 궁리했다. 긴급 주요공지를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안내할 방법을 고민했고, 2018년 5월 ‘부산교육 다모아 앱’이 탄생했다.

다모아 앱의 ‘PUSH 알림 서비스’는 재난, 재해, 미세먼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 휴업이나 등·하교 시간 조정 등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학교 알림장’은 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등록해 두면 해당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오늘의 식단, 학사일정 등에 새 글이 탑재될 때마다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이 알림장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PUSH 알림으로도 전달되어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그동안 학교

소식을 종이로 인쇄된 가정통신문으로 자녀를 통해 전달받아 왔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발생한 학교와의 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자녀안심+’는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으로 실시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자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가족으로 등록된다. 다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부산교육 다모아’를 검색한 후 설치하고, 이용약관 동의와 전화번호 인증, 기초 정보 입력 후 자녀의 학교나 관심 있는 학교를 등록하면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학부모·학교·교육청 소통 기반 앱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카드뉴스, 신문 광고, 연수, SNS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한 결과,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640여 개 학교, 129개 유치원을 포함해 기관 내·외부 협업을 교육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96%로 나왔다. 주요 교육정보의 통합 알림으로 정보 획득이 편리해지고, 종이 가정통신문 발송 최소화로 행·재정 업무가 줄어들었으며, 비상상황 긴급 메시지 발송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부산교육이 실현됐다.

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부산교육 다모아 앱’으로 학생·학부모·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극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신속한 교육정책 홍보 및 선제적 학부모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학부모·학교·교육청 간 소통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증가하는 사용자에게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증설한다. 또 학급 알림장 기능을 개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의 행사·체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학부모·시민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전환

# 고교서열화 해소한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자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대비 1.7배, 자율고는 1.4배를 기록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학비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았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 ’20년 100여 명을 양성하고 ’24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 02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학·어학·예술·SW 등 특정 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은 특성화고 수준의 필수이수단위로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94→66단위)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 03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원양성 체제 강화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한다.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04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

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24년까지 총 2,2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 05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②



##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 놀이처럼 배우는 SW교육, 세상과 우리를 잇다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현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6)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유튜브 ‘도티(사진5)의 강연을 비롯해 SW교육 전반의 내용을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10월 11~12일 양일간 5만 명 운집**  
**학교·공공기관·기업 등 167개 기관 참여**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우는 SW교육 현장**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한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11~12일 양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됐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올해 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 167개 기관이 참여하고

양일간 관람객 5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미있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158개의 프로그램이 이틀간 운영됐다. 정부 정책 소개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해외 사례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전반의 내용을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행사장에는 각급 학교의 소프트웨어 동아리가 가장 많은 부스를 채웠다. 풍선 터뜨리는 로봇 만들기(여도중), 3D펜으로 배우는 메이커교육(나주중앙초),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SW교육(담양남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들이 쉽게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들이 주체가 돼 직접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시연하며 관람객들을 맞이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우리 학교는 이렇게 SW교육해요”

햄스터 미로 탈출하기 프로그램을 선보인 여수정보과학고 부스에서는 이은서(금융과 1학년) 학생이 “햄스터 로봇과 엔트리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방향키로 로봇을 조종해 미로를 탈출하는 것”이라며 원리를 설명했다. 초등학생 관람객들이 이 양의 설명에 따라 곧잘 조종하자 조속희 교사(정보)는 “코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매주 수요일 5-6교시 동안 이뤄지는 ‘코딩 놀이터’ 동아리 시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 양은 “고등학교에 들어와 처음 코딩을 접했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며 “정규수업 중에도 정보처리와 관리 과목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딩을 배우고 있다. 정보특성화고등학교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온 학부모 이해욱 씨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들이 많아 재미있게 참여했다.”라며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뤄지길 원하는데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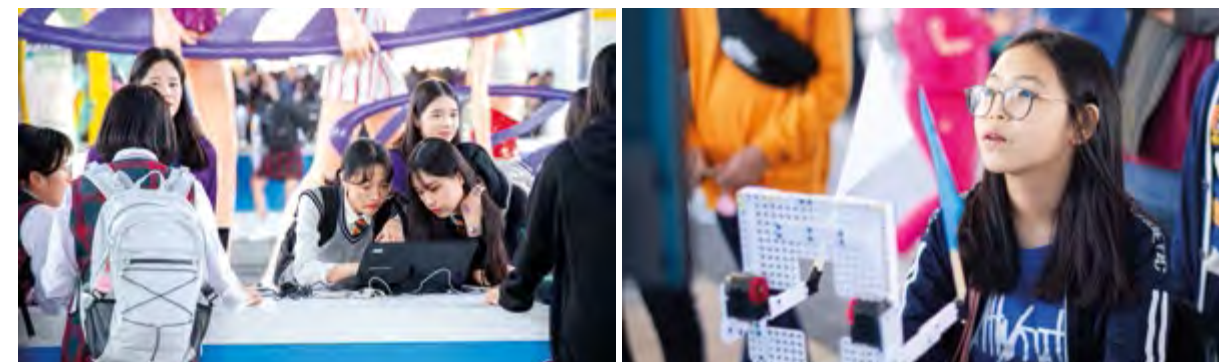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도 전체 학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예비교원 대상 SW 수업설계 대회 활발

행사장에서는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수업설계 대회들도 동시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중 ‘2019 SWEET 해커톤 대회’는 예비교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사업(SWEET) 참여 대학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기반 수업으로 구현하는 대회다. 참가자들은 초등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수업을 직접 구상해 경쟁에 나섰다.

대구교대 컴퓨터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다영·박지수 학생은 초등교육과정의 수학과 사회 교과를 소프트웨어와 융합한 ‘공유자전거 정류장 설치하기’ 수업을 설계했다. 김 양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우리 마을에서 공유자전거 정류장을 어느 곳에 설치하면 좋을지 토론하고 논의해보는 수업”이라며 “공유경제에 대한 설명은 사회 교과, 정류장 위치에 대한 통계는 수학 교과와 연계된다. 여기에 햄스터 로봇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수업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스에서 열린 ‘2019 소프트웨어 에듀톤 결선 대회’도 역시 교육대 및 사범대 컴퓨터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설계대회다.



온라인 코딩파티 체험(좌측)과 코딩을 활용한 청기백기 게임(우측)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예선과 본선을 거친 7개 팀은 당일 행사장에서 직접 수업 시연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재민 연구원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려면 현재 정보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사가 될 예비교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라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도티’ 강연 등 부대행사 운영**

이번 행사에는 미래 기술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초·중등 학생들의 이야기, 스타트업 개발자

들의 강연, 학부모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됐다. 특히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의 강연, ‘DJ디폴’의 코딩 공연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막식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

**“SW교육, 지루한 이론 수업 대신 게임으로 재미있게” - 전남 사창초 ‘사창 메이커스’**

전남 사창초등학교(교장 노명숙)의 ‘사창 메이커스’ 팀은 소프트웨어 메이킹 게임 존을 구성해 인기 부스로 자리매김했다. 소프트웨어 활용 게임을 체험해보려는 관람객들이 부스 밖으로 길게 줄을 늘렸다. 모니터 화면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조종기로 로봇의 청기와 백기를 올렸다 내리는 청기백기 게임, 무작위로 나오는 벌레를 터치해 점수를 얻는 벌레잡기 게임은 모두 코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들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서 벌써 3년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학교 강신옥 교사(실과)는 “동아리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들로, 센서와 모터를 장착하고 코딩을 활용했다.”라며 “학생들 뿐 아니라 이제 동료 교사들도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창 메이커스’ 학생들은 직접 레고로 만든 작품들을 시연하며 뽐내기도 했다. 버튼을 누르는 대로 오르내리는 미니 엘리베이터, 원격조정기술을 이용해 움직이는 구조차, 버튼을 눌렀을 때 무작위로 입이 다물어지는 랜덤악어 등. 모두 모디, 마이크로비트, 비트브릭,

햄스터 등 코딩 교육용 교구를 활용해 만든 작품이다. 소프트웨어 교사가 꿈이라는 노지은 학생(5학년)은 “학교에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 방과후 소프트웨어 교실이 열리는 데, 그곳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다.”라고 했다. 김민국 학생(5학년)은 “사실 실과 시간에 배우는 이론 수업은 지루하지만, 동아리 시간에 코딩을 활용해 직접 만드는 활동이 재미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창 메이커스 학생들은 모두 “앞으로 교과 시간에 소프트웨어 수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도담초 “아프리카 아이들 일상 체험했어요”**



도담초등학교(교장 김태환)는 지난 10월 29일 나눔 실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및 학부모 189명과 함께 ‘희망걷기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6km를 걸어야 하는 일상을 간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한 걸음당 1원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가족과 함께 일깨워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도담초 학생 92명과 학부모 97명 총 189명은 도담초를 출발하여 원수산에 도착해 3개의 코스를 체험했다. 1코스(달메들

근린공원)에서는 ‘지압판 걷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길기 위해 맨발로 걷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2코스(숲속모험놀이장)에서는 ‘그물망, 림보 장애물 지나가기’를 체험했다. 3코스(숲속피크닉장)에서는 VR 체험, 아프리카 물펌프 체험, 흙탕물 모자이크를 맑은 물 스티커로 붙이기, 가족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응원했다. 한환희(4학년) 학생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태환 교장은 “도담초 학생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일상 간접체험과 굿네이버스의 체험부스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9 부산수학축제, ‘신명나는’ 수학 한마당**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9 부산수학축제’가 ‘신명나는(신나는, 명쾌한, 나누는) 수학’을 주제로 지난 10월 26~27일 이틀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수학축제는 90개 체험부스와 ‘수학아, 놀자!’, ‘방탈출 게임’, ‘매스 투어’ 등 보고 만지고 활동하면서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체험 부스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평초는 ‘하기유닛-정육면체 만들기’를 주제로, 유락여중은 ‘문살 곱셈 한지등 만

들기’를 주제로, 부산남일고는 ‘모래를 이용한 교과서 속 도형 탐구’를 주제로 각각 참여했다. 또 ‘수학아, 놀자(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코너는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함께 보고 만지고 탐구하는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지오데식 돔 전등 만들기’와 ‘리펠러 게임을 통한 연쇄반응 예측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다. 초량야구장과 시민공원, 용두산공원, 전포카페거리 등 4개 지역 명소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사들과 함께 QR코드와 리플릿 등을 활용해 수학 문제를 풀고 실생활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발견하는 ‘매스 투어’ 체험도 진행됐다. ‘방탈출 게임’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팀별로 주어진 수학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참여 학생들이 수학적 추론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명나는 수학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충남예술고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기부



충남예술고등학교(교장 심상희) 미술과 학생 60여 명과 교사들은 지난 10월 9일과 12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벽화 그리기 행사에 참가했다. 지난 2017년 아파트 담장에 꿈, 희망, 사랑을 주제로 벽화 그리기를 한 데 이어 2번째 작업이다.

주제는 어르신들에게 친근한 조선 시대 그림 중에서 민화와 신윤복, 김홍도의 풍속화를 재구성해서 표현했다. 벽화가 완성되자 주민들은 마을 분위기가 훨씬 생동감 있고 활력 있어 보인 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 예술교육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예술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예술 활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벽화 그리기에 동참한 한 학생은 “작업 할 때는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았고, 한층 밝아진 외벽으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기쁘다.”라고 말했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우리동네 생태탐방' 실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이 영산강 유역 담양하천습지에서 신가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동네 생태탐방(이하 알쓸우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알쓸우생' 프로그램은 지역 대표 하천인 영산강 상류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환경을 알아감으로써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와 더불어 생태인문학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흰불나방에 의해 가해진 뽕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담쟁이 넝쿨이 흡반을 이용하여 오르는 모습, 달표늪서성거미의 동글동글한 권투장갑 더듬이를 관찰하면서 다양한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거미를 무서워했는데 손바닥에 올라온 거미를 보니 귀엽게 느껴졌다.”라고 말하며 흥미로워했다. 프로그램을 인솔한 영산강유역 환경청 소속 손광민 해설사는 “모든 곤충과 식물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람 사는 사회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담양하천습지는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조류의 집단서식지이며 자연형 하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2004년 우리나라 하천 습지 중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황조롱이, 새매, 청딱따구리, 물총새 등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광주는 무등산과 영산강이라는 천혜의 생태교육 자연환경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교육·다문화 감수성 기른 진도초 '녹색장터'



진도초등학교(교장 박홍일)가 지난 10월 23일 '행복 나눔 녹색장터와 다문화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장터 개설, 장 둘러보기, 장터 운영, 음식 장터, 다문화체험과 전통놀이 순으로 이어진 행사에는 77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8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생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녹색 생활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장터에는 학용품, 책, 장난감, 의류,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이 진열됐다. 학생들은 자기가 가져온 물건의 가격과 가게 이름을 정해 물품을 판매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 물건 판매에 참여한 6학년 윤성민 학생은 “물건을 판매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행사가 매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마음도 다졌다. 다문화 놀이 한마당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한몫했다. 학생들은 켄다마, 겨우, 라고 던지기, 공죽 등 여러 나라의 민속놀이와 우리의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며 다양성, 관계성, 다문화 감수성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렀다. 5학년 임채린 학생은 “우리 전통놀이를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수험생 응원송'



“시험지에 삶의 답은 없는 걸/등급이 너를 말할 수 없듯이/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길을 찾는다면 그제 바로 합격이야/꽃이 필 땐 저마다의 때가 있듯이/겨울 지나면 눈부신 봄이 오듯이/떨지마 두려워 마 우린 날 믿어”  
현직 교사들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화제다. 수년간 고3 담임을 맡았던 김병현(봉의고) 교사가 작

사-작곡했으며 김병현, 백서윤(우석중) 교사가 노래를 불렀다. 뮤직비디오에는 한재현(춘천고), 송민수(황지고), 심지연(세연중) 교사가 함께 출연했으며, 앨범 표지에 있는 손글씨는 박영림(호반초) 교사가 썼다. 뮤직비디오는 다섯 명의 선생님들이 숲속에서 부르는 노래와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힘겨운 일상이 교차 편집됐다. 지난 11월 6일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오TV'에 공개됐으며, 음원사이트 멜론을 통해 무료 배포됐다. 강원도교육청 블로그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노래 '꽃'은 '합격을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부제를 달았을 만큼 입시에 지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 가사도 선생님이 학생들과 나눈 대화로 구성됐다. 김병현 선생님은 “수험생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라며 “노래의 진심이 전해져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②



##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④지방교육재정의 해안

# 노후화된 환경, 공부담 확대 등 ‘교육의 질’ 고민할 때

### 글 쓰는 순서

-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 ③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 ④ 지방교육 재정의 해안
- ⑤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2000년 795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545만 명이 되었고(한국교육개발원, 2019), 앞으로 더욱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교육계 외부에서는 재정 규모 축소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여 왔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비롯한 재정 효율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누리과정이나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추가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 누리과정의 경우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의해 임시로 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그만큼 다른 교육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계 외부에서는 교육비 수요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나, 교육복지를 포함한 각종 정책 수요 증가, 학교 수 및 학급 수 증가, 시·도교육청의 누적 채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증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여러 초·중등 교육지표는 여전히 선진적이지 못하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당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으며,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 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교육의 기본 여건인 교원당 및 학급당 학생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 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 수는 물론 행정지원인력의 증원을 통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한 사람의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교육재정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학생 수 감소의 상황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징

교육재정은 국가·사회의 공익활동으로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공경제 활동을 의미한다(윤정일 외, 2015). 이는 모든 교육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실상 교육행정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재정은 교육부 본부 및 국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국고사업비 등의 중앙교육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말한다. 이러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표]와 같이 중앙정부 지원금,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국세 총액의 20.46%를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며,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18%를 차지한다. 이 둘은 국세 및 지방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세 전망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세입 중 국세 수입의 저조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고<sup>1)</sup>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 중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지출 등 경직성 비용이 약 80%<sup>2)</sup>를 차지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 1) 국세가 2,547,702억 원(18실적)에서 2,556,304억 원(19), 2,511,198억 원(20)으로 2018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2) 지방교육재정 중 경직성 경비의 비율은 76.6%(13) → 78.4%(14) → 79.4%(15) → 79.9%(16) → 80.6%(17)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표]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자원과 규모

|               | 구분                  |   | 규모   |
|---------------|---------------------|---|--|
|               | 내국세분 교부금            | 보통교부금<br>특별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46%의 97/100<br>내국세 총액의 20.46%의 3/100  |
| 중앙정부 지원금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국세교육세분 교부금                                  |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br>* 국세교육세 중 일부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 |
|               |                     | 국고보조금                                       | 국고사업 보조금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국세 교육세 중 일부 + 국고보조금  |
|               | 시·도세 전입금            |   | 시·도세 총액의 10%(서울), 5%(광역시 및 경기, 제주도), 3.6%(여타 도)  |
|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 담배소비세 전입금           |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 총액의 45%  |
|               | 지방교육세               |   | 취득세산출금액의 20%, 등록면허세액의 20%, 균등할주민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3.99%, 레저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   |
|               | 학교용지 부담금            |   | 학교용지 실경비의 50%  |
|               | 교부금 보전금             |   |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의 6%)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
|               | 기타 일반전입금            |   |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등 비법정전입금   |
| 자체 수입         | 납입금, 재산수입, 사용료, 잡수입 |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
| 차입 및 기타       | 차입 및 기타             |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  |



김병주님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혁신본부장을 등을 맡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2018)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평가위원장(2015~2019)을 역임했다. 고등교육 및 교육재정 등에 대한 연구 논문 150여 편과 <한국지방교육자치론> 등 20여 권의 저서가 있다.



### 학생 수 감소, 지방교육재정의 해안은?

앞에서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국세 및 지방세에 연동되어 안정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세출 요인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외부의 시각이다. 즉, 유·초·중등학교의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교육재정 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등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와 교육재정의 감소는 선형적 비례 관계를 띠지 않으며, 오히려 세종시와 같은 신흥 도시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신규 주택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수요 등은 추가적 교육재정 소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학교신설 요구가 창출되어 전반적으로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교육재정의 가장 큰 세출 요인인 교원 수는 학급 수에 기반하여 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금이라도 교육재정의 여유가 생긴다면 이는 후진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 다문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교육재정,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재정,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 교육환경 개선, 실질적인 누리과정 강화, 고교 무상교육, 학교 내 돌봄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특수교육 강화, 학교 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환경 개선 및 내진 설계 보강, 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수석자부담경비 공부담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한 추가 재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후시설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학교 중 50년 이상 된 건물이 2.7%, 40년 이상 된 건물이 14.1%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1세기의 아이들을 더는 이처럼 오래된 건물에 방치할 수는 없다. 여전히 70년대의 일자형 표준설계도에 따라 설치된 대부분의 학교건물과 공간들을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추가 재정 소요는 교육여건 개선과 정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추가 재정 소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재정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육재정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첫째,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해서 교육재정이 감소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1980년 대비 학생 수는 34% 감소한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교원 수(90%), 학급 수(34%) 및

학교 수(15%)는 증가하였다. 이는 교원당 학생 수 개선,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교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적지 않다.

둘째, 학교 회계에서 배보다 큰 배꼽인 수석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련활동비, 체험활동비, 방과후학교비, 급식비 등)의 공론화와 지원도 필요하다. 수석자부담경비가 새로운 교육격차 요인이 되며 학교회계에서 공부담 공교육비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가 되어 가고 있다. EBS 연계 교육, 방과후학교 등의 경비는 사부담 비용이면서도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모순을 지닌다.

셋째, 학급당 학생 수, 교원법정정원 산출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100%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르치는 교사(instructional teacher)와 지원인력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김병주, 2014). 법정정원 산출 시 지원인력 제외 및 법정정원 산출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충분한 교원의 확보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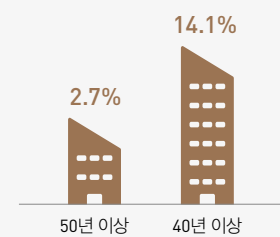
### 교육의 질적 성과에 기초한 교육투자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여건의 지속적·추가적 개선 필요성과 함께 교육과 관련한 국민적 투자 수요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투자 성과에 대한 논의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투자 성과 논의는 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학업성취도와 같은 정량적 지표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교원당 혹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 PISA나 TIMSS 등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

육성취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교육여건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상존하지만, 질적 측면의 교육성과 면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낮은 학습동기나 학교만족도, 높은 스트레스 및 우울감과 같은 학생의 정서발달상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교육투자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학생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교육투자의 방향 역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 진전된 교육재정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그림] 학교 건물 노후화 현황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 참고문헌

- 김병주(2014).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주·김민희·오병호·이길재(2016). 학생수 감소시대의 중장기적 지방교육재정 예측 및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2015). 신교육재정학.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index.jsp>
-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교육통계 주요 지표.
-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2019). OECD 교육지표.



## 탁 썸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후회되는 일



4교시에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점심밥 먹으러 갈 시간이다. 우리 반 아이들이 “배고파요. 밥 빨리 먹으러 가요.” 재촉하는 걸 내가 무뚝뚝한 말투로 “동생들 먼저 먹으라 해야지.” 이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다. “6학년이 먼저 먹어야 한다고요!”

태준이는 동생들이 먼저 밥 먹으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차라리 밥을 안 먹겠다고, 체 게바라처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난 밥 안 먹어요, 버럭 말하며 저쪽으로 가버리는 녀석을 보니 속에서 부글부글 미운 감정이 치밀었다. 그러나 내가 뭘 어쩔 수 있겠나. 딱 고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면 딱 고만한 크기의 자기 자신인 것. 더 말해봤자 쓸데없는 잔소리로 여길 테고, 나만 초라해질 테고.

오후에 밥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눴다. 정말 6학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심술을 부려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나는 동생들한테 양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너네는 여전히 6학년이 앞장서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성원이는 아니다. “저는 1학년부터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6학년 먼저 먹는 것 반대.”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옳은 말은 따돌림감이 되기 쉽다.

덩치 큰 아이들은 다르다. 신념 가득한 얼굴로 6학년이 먼저 먹는 게 옳다고, 중학교에 가면 3학년이 먼저 먹고 1학년이 나중에 먹는다고, 자기들도 곧 중학생이 되니까 고학년 부터 먹어야 한단다. 집에서 웃어른이 먼저 손가락을 드는 것처럼, 6학년은 우리 학교의 기둥이니까 늦게 먹으면 질서가 흩어진다고, 6학년이 먼저 먹어줘야 한단다.

산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들어보자고 아무리 다짐해 봐도 내 귀에는 말이 밍다. 평소에는 ‘배고파요, 배고파요’ 해서 내가 4교시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줘서 밥 먹으니까 밥 먹는 순서 따위 안 중요하다. 하지만 전교생이 똑같이 끝난 자리에서 6학년이 밥 먼저 먹겠다고 달려가서 앞을 차지하면 동생들 보기에 먹통이 형 심통이 오빠로 보이는 것 아닌가?

“6학년이 가장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공부도 어렵기 때문에 6학년이 밥을 먼저 먹어야 해요.”

“음식에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6학년이 먼저 먹고 위험한지 아닌지 알아내야 동생들이 안전하잖아요.”

차라리 말이나 못 했으면. 나는 아이들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설득하고 싶지 않고, 설득할 자신도 없고, 더는 말 듣고 싶지 않다.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하나 덜렁 구해다가 너네 모습 한번 들여다보라 해주고 싶다.

“다른 학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 어때? 설문을 돌려서 6학년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6학년이 먼저 먹는 거로 하자.”

가라앉았던 교실이 갑자기 들썩 신났다. 다른 사람도 6학년과 같은 의견이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틀린 것이라면 아이들한테 고개 숙여 정중하게 사과하리라,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설문지 문구를 만들었다.

“‘6’이 아니라 ‘고’로 글자를 바꿔요.”

“유치원은 빼요.”

6학년보다는 고학년이라 해야 편드는 숫자가 늘어날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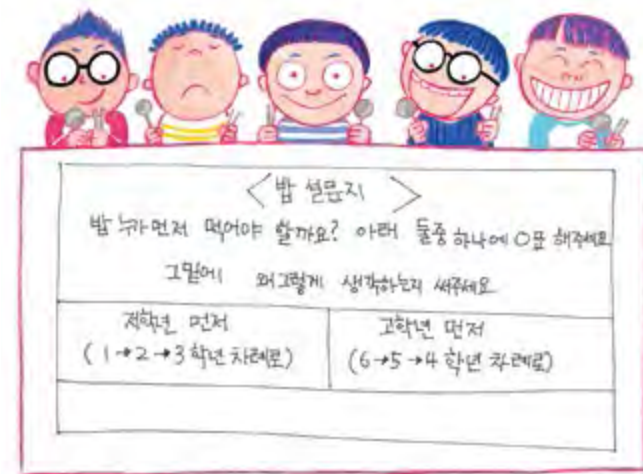
라는 계산, 우리 학교는 저학년보다 고학년 숫자가 2명 더 많다는 것을 꿰뚫고 있는 치밀한 작전이다.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

아이들은 복사한 설문지를 나눠 들고 환한 얼굴로 흠뻑 젖었다. 밥 먼저 먹는다는 말에 마냥 헤헤거리는 저 순박한 모습들을 보며 어느새 내 속이 좀 풀렸다. 잔하다. 동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겠지. 고학년이 먼저 먹게 써 달라고. 좋은 말로 살살 꼬시면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이번 일을 기회로 동생들처럼 서로 이야기 나누며 친해지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봉봉 날며 교실을 떠났던 아이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하나둘 돌아왔다. 받아들인 설문지를 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낯빛들이 어두워 보인다. 내가 쌓아놓은 설문지를 집어 들며 말했다.

“읽을게. 보나 마나 6학년 먼저 먹으라는 의견이 많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약속대로 내일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1등으로 먹는 거로.”

아이들 얼굴에 살짝 기대감이 들었다. 설문지를 읽었다. “1학년 먼저. 1학년 만이 먹고 크야 하나까.” “1학년 먼저. 어린 학생들은 배고픔을 참는 힘이 없어서.” 교실이 어수선했다. 에휴 한숨 소리도 나오고, 우우 소



리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기도 하고, 욕도 나오 고, 계속 읽었다.

“1학년 먼저. 꼬마 아이들이 더 힘이 없고 6학년은 충분히 힘도 세기 때문이다. 그리고 6학년, 이런 거로 무슨 설문 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학년 먼저. 1, 2학년들이 많이 놀고 그러니까 저학년이 먼저 먹는 게 맞다. 그리고 6학년의 자존심은 개뿔, 너가 유치원이나?”

너무하다. 서운하다. 6학년을 뺀 나머지 모든 학년에서는 1학년, 또는 저학년이 먼저 먹어야 한다고 의견을 썼다. 어떻게 편들어 주는 동생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아이들 몸이 뒤로 늘어졌다. 기대에 찼던 얼굴들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있다! 6학년 먼저 먹으라는 설문지도 있어.” 아이들이 그것 보라며 고개를 바짝 당기며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것은 너무나 귀한 특별 설문지니까 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었다.

“6학년 먼저. 6학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밥도 많이 쳐드셔야 하나까.”

“6학년 먼저. 왜냐하면 6학년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저학년이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 꺼내 청소하고 아무 인사도 없이 폭 숙이며 교실을 떠났다. 나 혼자 빈 교실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말이란 게 부질없구나. 너 말 틀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바짝 붙어서 바람 부는 바닷가라도 함께 걸을 것을 그랬다. 나와 아이들 사이는 확 깨져 버렸다. 이제부터 아주 여러 날 동안 아이들은 자기네를 이긴 얼굴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게으른 아이 정현

시간관념이 없어 지각하기 일쑤고, 빈둥빈둥 놀다가 뒤늦게야 숙제를 끄적이거나 그마저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나 혼을 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전혀 효과가 없다. 게으른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문제** 정현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며, 저녁에는 학원을 자주 빼먹는다. 집에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중독 수준으로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치면 모든 과목이 30점 수준이다. 엄마가 걱정돼서 이것저것 충고를 했지만, 고쳐지는 게 없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실에 왔다.

**진단** 정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애는 정말 걱정이에요. 게을러터졌어요. 제발 마음잡고 공부하라고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참다 못해서 뭐라고 하면 저한테 고함질러요. 몇 주 전에는 공부하랬더니 짜증 난다고 망치로 방문을 때려 부셨고, 금주에는 다리미를 마루에 내리쳐서 꽃았어요. 어떡하죠?”

상담 선생님이 엄마를 잠시 대기실에 있게 하고, 정현과 마주 앉았다. “정현아, 엄마는 네가 놀기만 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구나. 네 생각은 어떠니?” 정현이 울면서 말했다. “전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어요. 간섭이 너무 심해요.” 정현은 너무 지쳐서 죽을 지경이니 자기 방에 불쑥 들어와서 여러 시간 잔소리하지 말 것, 나쁜 친구들과 절교하라고 하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만 해서 안 된다.

시작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 말 것, 알아서 공부하게 내버려 둘 것을 요구했다. 아이고, 이런. 엄마와 정현은 생각이 정반대다. 이러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상담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했다. “정현이 게으름피울 때 혼을 내면, 근면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기가 싫어져요. 게다가 게으름뱅이로 낙인찍히니까 더 하기가 싫죠. 그래서 다음번엔 더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더 야단을 치고, 정현은 더 게을러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사이도 나빠지고요.”

아이들은 아차 하는 순간 나태로 빠지기 쉽다. 다시 근면한 생활로 돌아오려면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게으르게 지내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귀찮음이라는 관성을 극복해야 한다. 게으름도 일종의 안락한 평형 상태기 때문에 힘든 일을 시작하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아이도 잘하고 싶은 의욕에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하면 엄마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지만, 말만 하고 몸이 안 따라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면 엄마는 거짓말했다고 화내고 아이는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원망한다. 이쯤 되면 근면이라는 원목적은 사라지고, 비난하기에 열중한다. 둘째, 다시 시작하려면 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게으름뱅이 대부분이 몇 년 동안 버리기만 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만 해서 안 된다. 시작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옛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셋째, 지나친 충고는 아이를 더 게으르게 만든다. 아이가 게으르면 엄마가 아이보다 더 초조해서 그만 자제심을 잃고 날

카로운 말을 하기 쉽다. 잘하라는 뜻으로 했지만, 아이가 듣기에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용기를 움츠러들게 한다. 그래서 불손한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러면 엄마는 더 예리한 비판을 하기 쉽다. 이래저래 악순환이다.

**지도** 정현엄마와 상담 선생님이 서로 의논한 끝에 몇 가지 행동원칙을 정했다. **첫째, 앞으로 2주 동안 일절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 휴전 상태로 지낸다.** 서로 격화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주가 지나자 엄마는 ‘아빠는 회사 임원이 될 준비에 바빴고, 저도 학위를 받으려고 바빠서 정현을 제대로 못 봐줬어요. 우리가 문제네요.’ 하시며 마음이 누그러지셨고, 정현은 ‘이제 좀 편해졌어요. 살 만해요.’ 했다. **둘째, 이래라저래라하기보다 정현이 무얼 하고 싶은지 알아보고 돕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현은 ‘집에 있으면 침대가 있어서 자꾸 자게 돼요. 독서실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신형으로 바꾸려면 새벽까지 하지 않을게요.’ 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자 ‘너는 맨날 거짓말만 하는데 지금 또...’ 하시다가 ‘앗, 이리저리 안기로 했지.’ 하면서 미안해하셨다. **세 번째 계획은 서로 사이좋아지기다.** 사람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어머니는 세 번째 계획을 실천하는 셈이다.

한 달쯤 지나서 정현이 상담 선생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가 잘해주시니까 가족이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 정현아, 게으름을 열어젖히고 근면으로 나아가는구나. 참 보기 좋네. ②



# 자신과 궁합이 맞는 고등학교 선택해야

Q. 올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년초부터 아이들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진학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고교 유형이 다양하고 평준화, 비평준화지역 등 선택지가 다양한 만큼 고교 1지망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아이들이 궁금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고교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대입이라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은 고입이다. 진로·진학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요즘이 중3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다. 이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교육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한다.

## 고교 1지망, 선택기준은?

### 01 자신의 진로 설계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개설된 고등학교가 최우선 선택지다.

2015 개정 교육과정(현 고2부터 적용)은 크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뉜다. 2022학년도(현 고1) 대입 역시 국어, 수학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며, 탐구영역 역시 두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즉, 내신과 수능 역시 학생의 주도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만 학생 수와 교사수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제하는 고등학교의 현실은 학생의 선택권을 세세하게 배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원하려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에 자신이 선호하는 교과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경영·경제학과군은 '경제' 과목, 전기전자·기계 학과군은 '물리Ⅱ' 과목 개설 유무 등은 대입의 결정적 요소다. 현재 고1, 고2 교육과정 편제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 02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sup>1)</sup>, 주문형 강좌<sup>2)</sup>, 온라인 공동교육과정<sup>3)</sup> 수강은 고등학교 역량을 결정하는 변수다.

방과 후에 개설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는 소수 학교에만 개설되어 있어서 희소성도 작용한다. 대학들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교 수업과 교과연계활동 위주로 채점하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 포함되고 학업성취도까지 산출되는 이런 수업들을 선호한다.

### 03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대입 성적을 결정하는 상수다.

인문계, 자연계 핵심 정규·자율 동아리, 차별성 있는 봉사활동과 독서활동, 자율활동 중 특색 있는 학교·학년 활동과 특히 학급 활동의 활성화 유무도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다.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이 드러나는 진로활동은 많을수록 좋다.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경기꿈의학교' 등 시·도교육청에서 개설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거점학교나 참여율이 높은 학교도 권하고 싶다. 여기에 두 명 이상의 진로·진학 전문교사가 있고 수시·정시 준비가 모두 가능한 학교라면 더할 나위 없다.

### 04 특성화 교육과정<sup>4)</sup>을 지정한 학교 역시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 예술, 체육, 외국어, 융합, 국제화 등의 운영 교과로 편성돼 있다. 지정한 교과를 집중해서 배우는 교과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의 입시성적이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대학이 원하는 수업을 많은 시간 이수하기 때문이다.

### 05 수시모집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대세 시대에 내신 성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내신 성적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등학교의 대전제는 학생 수다. 같은 등급대 학생 수가 많아 안정적으로 등급 따기가 수월하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고등학교 인문계, 자연계 학급 수와 학생 수는 '학교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 고교, 진로 중심에 두고 선택하면 금상첨화

끝으로, 고입 목적이 현실적으로 대입이라면, 입시에 맞춰서 자신과 가장 궁합이 맞는 고등학교를 잘 따져서 선택하면 된다. 백 번이라도 찾고 또 찾아보자.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만이 강요되어선 안 된다. 통학거리, 남녀공학과 동성학교 여부, 기숙학교 여부, 맵시 나는 교복, 맛있는 급식 등 학생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면 한다. 거기에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sup>1)</sup>

1)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말하며, 주로 방과 후에 운영함  
2)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으나 교사 수급 문제 또는 반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개설이 어려웠던 과목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별도로 개설 운영하는 강좌  
3)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없을 때 내가 신청한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온라인 교육포털 '교실온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4) 특정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색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진로·진학과 연계된 심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



#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이 있었을까?

## 壯元及第

수험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도 마찬가지였다.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대리시험에 해당하는 차술자작(借述借作), 시험장을 책을 갖고 들어가는 수종협책(隨從挾冊), 시험장에 드나드는 입문유린(入門蹂躪) 등 끝이 없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도 다양했다. 과거 시험장을 둘로 나누어 형제나 친척은 서로 다른 과장(科場)에서 응시하게 했다. 응시생은 종이, 붓, 먹, 벼루만 들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험장 입구에는 문지기인 수협관을 세워두고 철저한 몸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만약 책을 숨기고 들어가다가 들키면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양반 자제들은 평소 수발을 드는 종을 데리고 다니곤 했는데, 시험장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었다. 응시자가 아닌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즉시 체포되어 군에 보내졌다.

시험장에 들어간 응시자들은 여섯 자 간격(약 180cm)을 두고 앉았다. 시험장에는 군데군데 감독관이 배치되어 답을 쓰는 응시자들을 감시했다. 벼루나 옷자락 따위에 경전의 내용을 빼곡히 적어두었다가 이를 몰래 베껴 쓰지 않는지, 남의 답안지를 엿보지 않는지,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 슬쩍 끼워 넣지 않는지 살폈다. 두 사람이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한 사람 것만 내는 사례도 감시 대상이었다.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두 차례의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정기 시험은 3년마다 시행되었으므로 입신양명의 기회가 6년이나 미뤄진 셈이다. 남의 글을 베껴 쓰거나 남이 쓴 답안지를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한 응시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노동형에 처하거나 심하면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 공정한 시험 제도는

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 답안지 바꿔치기, 가짜 감독관…시험 무효 처리되기도

우리 사회에서도 수능 집단 부정행위나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같은 대형 입시 부정 사건이 일어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곤 한다. 조선 시대에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과거 시험 부정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 숙종 때 일어난 세 차례의 ‘과옥(科獄)’은 악명이 높았다.

1699년(숙종 25) 10월의 기묘과옥은 단종 복위를 축하하며 실시된 증광과(增廣科) 전시(殿試)에서 벌어졌다. 5년간의 조사를 거쳐 50명의 응시생이 처벌받고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 대형 사건이었다. 당시 적발된 부정행위는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 감독관을 응시자의 종으로 바꿔 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 답안지를 바꿔 낸 이제, 윤귀열 등은 8년간 군에서 복무해야 했고, 자신의 종을 감독관으로 세운 안귀서, 최석기는 온 가족과 함께 추방되었다. 주인을 위해 가짜 감독관 노릇을 한 사람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3년간 군역을 치러야 했다.

임오과옥은 1702년(숙종 28) 봄의 알성시에서 일어난 시험 부정 사건이었다. 아홉 명의 합격자 가운데 체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려 여덟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712년(숙종 38)의 정시에서 비롯된 임진과옥에서는 체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이 극심한 시기였는데, 체점자는 소론 측 인물이었다. 암호의 의혹은 제기한 것은 물론 노론 측이었다. 노론이 집권한 시기에는 이 의혹이 크게 취급되어 합격이 전부 취소되었다. 그러나 훗날 집권한 소론 측은 암호 의혹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정해 합격자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처럼 과옥은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은 입시 부정 문제를 부풀린 측면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두 당파가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다 보니 규율과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이다. 숙종 대의 3대 과옥을 거치면서 과거 시험과 관련된 지침의 80%가 정비되었다고 한다. 당쟁이 극심했던 숙종과 경종 시기를 거쳐 영·정조 시기의 문화부흥이 이루어진 데는 그러한 과거 제도의 개선도 한몫했을지 모른다. 공정한 시험 제도는 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②



# 가을 제주에서 만남 비경

제주는 계절마다 그 모습이 바뀌는 신비한 섬이다. 언제 방문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줘 질릴 틈 없이 새롭다. 그중에서도 제주의 가을은 청량한 하늘과 어우러진 바다, 억새 핀 오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뒤덮인 한라산 등 곳곳이 비경을 자랑한다. 마침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날, 제주를 찾았다. 가을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여정을 시작한다.

## 갯각주상절리대, 자연이 조각한 기암절벽

첫 목적지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갯각주상절리대로 정했다. 제주의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절경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상절리는 지표면에 흘러내린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안을 따라 1.75km 간 이 어지는 갯각주상절리대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40m에 이르는 돌기둥 절벽은 자연이 깎아놓은 그대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주상절리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지만, 가는 길은 꽤 험난하다.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몽돌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대신 여간 미끄러운 게 아니다. 휘청휘청, 힘겹게 중심을 잡으며 기암절벽에 다가갈수록 그 위용이 드러난다. 억지로 만들 수 없는 사각형, 육각

형의 돌기둥이 규칙적인 균열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다. 자연이 조각한 작품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절벽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커다란 아치형 굴의 입구가 나온다. 천연 해식동굴이다. 폭은 좁고 천장은 높은 해식동굴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 같다. 동굴 안쪽 천장에서 떨어졌을 암석들이 만든 짧은 경사를 오르면 다시 바다가 보이는 출구가 나온다. 주상절리대를 관통하는 동굴 속으로 바닷바람도 길을 따라 불어온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가늠해본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엿본 짧은 탐험을 마치고 다시 해안을 따라 돌아온다. 멀리 펼쳐진 주상절리 절벽은 가까이서 바라봤을 때와는 또 다른 웅장함을 준다.





### 동양 최대 크기 법당을 자랑하는 약천사

사찰을 방문하면 특유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불자가 아닌데도 마음의 평안을 얻곤 한다. 그래서인지 여행을 떠나면 한 번쯤 그곳의 사찰을 둘러보고 싶어진다. 제주의 사찰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을 안은 채 갯각주상 절리에서 차로 15분여 달려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약천사를 찾았다.

산을 오르지 않고 입구에서 걸어 내려가 만나는 사찰이 조금은 낯설다. 더 놀라운 것은 법당의 크기다. 약천사의 대적광전은 단일 법당으로는 동양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30m의 높이에 3층 구조로 지어진 법당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을 준다. 신발을 벗고 그 장엄함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본다.

법당 안에 들어가자 3개의 커다란 불상과 마주한다. 법당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불상은 한눈에 바로 담기 힘들 정도다. 그 앞에는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을 타고 청룡과 황룡이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화려함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불경 소리에 두 손을 합장하고 무언가를 빌고 싶어진다. 천장을 가득 채운 연등에서도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 이들은 어떤 간절함을 담아 연등을 띄웠을까.

- 1 약천사
- 2 갯각주상절리
- 3 협재해수욕장



외부에서 바라본 대적광전은 3층이지만, 내부는 4층의 구조로 되어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회랑에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다. 불자들이 동참해 모였다는 8만 개의 금빛 불상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자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불심이 보인다. 그 충만한 기운을 담은 채 대적광전을 나오니 멀리 서귀포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사찰. 육지의 사찰과 또 다른 점은 야자수와 굴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약천사는 약수가 흐르는 절이라는 이름처럼 경내에 맑은 약수가 샘솟는다. 약수 한 모금과 함께 이국적인 사찰 풍경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좋다.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에 상념도 고요해진다.

### 마보기오름 역새발의 은빛 물

서귀포에서 다시 제주시로 향하는 길, 한라산 중턱의 산록남로 상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작은 이정표가 있다. 도로반사경 아래 숨은그림찾기 하듯 숨어있는 이정표에는 ‘마보기오름 입구’라고 쓰여있다. 마보기오름은 마파람(남풍)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역새 명소이기도 한 이곳은 아직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올가을 유난히 잦았던 태풍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누워버린 나뭇가지와 수풀은 이리저리 몸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었을 그 날의 바람을 짐작하게 한다. 쉽게 길을 내어 주지 않는 수풀을 헤치며 완만한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새 쪽 뺨은 삼나무들이 가리고 있던 햇볕이 점점 머리 위로 내리쬐기 시작한다.

오름이 좋은 이유는 등산처럼 큰맘을 먹지 않더라도 쉽게 정상 볼 수 있다는 것. 이정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은 지 20여 분만에 오름의 꼭대기를 뒤덮은 역새발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름 위에 펼쳐진 은빛 바다는 실로 장관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역새 물결이 일렁여 마치 역새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하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은빛 역새발을 눈에 담았다면 이제 귀로 담아볼 시간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훑날리는 역새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바람이 만드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은빛 파도가 연주한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 대신 바람이 나무를 사락사락 얽전한 소리를 낸다.

오직 가을에만 들 수 있는 역새 소리에 집중해 멍하니 앉아있으면 오롯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 협재해수욕장의 노을이 만든 풍경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여정지인 협재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제주도의 바다는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협재해수욕장은 탁 트인 에메랄드빛 바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운 백사장을 밟으며 다가간 가을 바다는 고요하다. 얇은 수심 덕분에 파도 소리마저도 잔잔하다. 물 위에 내린 빛은 반짝거리며 가까이 이끈다. 해변을 찾은 이들도 그 유혹을 이기지는 못한 듯, 서늘해진 날씨에도 기꺼이 그 속으로 두 발을 담근다.

하늘이 점점 붉은색으로 물드는 시간, 일몰이 만들어내는 역광에 서서히 질어지는 물빛을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 건너편 멀리 보이는 비양도까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질 때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순간으로 남기고 싶다. 도심에 갇힌 일상에서는 만나기 힘들 풍경을 두 눈에 최대한 담아본다. ㉞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99.6% 참여**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지난 11월 1일 개통됐다. 해당 서비스에는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544개원 (99.6%)이 참여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입학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 등록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호응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준 모든 국·공·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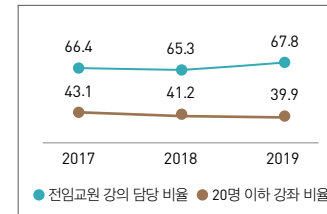
교육부가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게 되어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설 대학의 경우에 시행계획의 사전 공표 시기를 '입학 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하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입학사정관 친족 응시하면  
업무 배제**



**교육부,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최근 3년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및 20명 이하 강좌 비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0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해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사 운영계획 수립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과 대비했을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 연도에 비해 하락 폭은 완화되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하며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상향할 예정이다.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지난 10월 26일 개막했다. 23개 종목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이어진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문 학생 선수가 아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일반 학생들이 자신의 스포츠 재능을 발휘하며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시·도 대표로 전국의 초·중·고 1,400여 개 클럽 1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부터 순위를 정하지 않는 연맹방식(리그전)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 이외에도 지역 문화 탐방, 스포츠 테마 버스 등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역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8개월간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신탄진고등학교 킨볼 클럽은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토요일에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했으며, 특히 국가대표로 성장한 졸업생과 지속적인 훈련과 소통을 하며 실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들이 꾸준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초·중·고생 1만 9,000명 참가**





지난호 독자 리뷰



**[특별기획\_지역성장의 열쇠, 국립대학교]**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거점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의 연구 결과가 지역 산업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가 활성화되어 지역산업체의 기술적 고민을 해결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모니터단 김광희

**[정책N전망\_교육통계로 보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가 된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현상을 세계화로 정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시민이 될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기반을 둔 다양성 존중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단 윤경숙

**[교육포커스\_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③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학생 수가 줄어 남는 교실과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에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복합화시설안과 같은 시도는 정말 좋다. 학교가 갖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복합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모니터단 박지원

EVENT

11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미래교육의 키워드는 (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김지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이동열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김영진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 서울 소재 대학,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상향 조정
-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전형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 자사고·외고·국제고, 고교학점제 도입('25년)과 함께 일괄 일반고 전환 추진
- 일반고 교육의 질 제고 -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등

고졸 취업 활성화

- 범부처적으로 고졸취업 예산과 자원 투입 확대
-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